

목회자 한 명 세워지면 교회 하나 세워지는 것

**제9회행복한 목회자 세미나
 하남교회의 이민목회 섬기기
 탐 머서 목사
 교회가 프로그램에 빠지면
 주님의 명령과 목적 잃게 돼**

지난 8년 동안 묵묵히 미사립교회의 목회자를 섬겨왔던 하남교회(담임 방성일 목사)가 올해는 이민교회 목회자 섬김에 나섰다. 하남교회가 주최하고 후원하는 9번째 아름다운 동행 '행복한 목회자세미나'가 남가주지역 30여 명의 목회자를 초청, 지난달

25~27일까지 하이 데저트 교회, CJ그랜드호텔에서 열렸다. 방 목사는 "저도 이민목회를 9년 여간 섬기면서 내면의 목마름을 경험했다"면서 "외로운 이민교회 여정에서 로템나무 아래 엘리야의 심정이 되어버린 이민 목회자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기 원한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교회 성장과 전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오이코스(Oikos)로 유명한 탐 머서 목사가 강사로 초청됐다.

탐 머서 목사는 캘리포니아 주 빅토빌 지역에 교회를 개척, 27여

년만에 12,00여 명 이상이 출석하는 교회로 성장시켰다.

그는 "오이코스는 어떤 프로그램도 이벤트도 아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사셨던 모든 것"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오이코스는 헬라어로 가족, 친족의 의미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또는 전략적으로 평균 8~15명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도록 두셨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도를 위한 일차적인 공간으로 항상 가족 단위를 사용하셨다. [관련기사 2면에 계속]

“사람 살리고 세우는 나성영락교회되길”

올해로 창립 43년째에 접어든 나성영락교회가 내홍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달 24일 당회가 현 김경진 담임목사에 대한 불신임 표결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그 불신임의 여러 이유는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그 중 줄어드는 성도 수와 누적되는 재정난이 가장 큰 이유로 인식되고 있다.

이 상황은 곧바로 일반 언론에 노출되었고 교계뿐만 아니라 지역 한인사회의 큰 이슈로 대두됐다.

다. 어떠한 선한 해결책을 강구해 볼 여유조차 없이 확대해석되면서 급속

도로 사태화로 발전하고 말았다. 그 만큼 나성영락교회는 한인 교계는 물론 한인이민사회에서도 그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이 교회 성도들이 동요하는 것은 어찌하면 당면지사다. 급기야 지난 주일(1일)에는 김경진 담임목사에 우호적인 성도와 그렇지 못한 성도들 간의 불미스러운 갈등으로 경찰까지 동원되는 소동이 일어났다.

그런데 누가? 왜? 그리고 어떤 경로로 그토록 신속하게 이 달갑지 않은 문제(어찌하면 교회를 와해시킬 수도 있는)를 일반 언론에 흘렸는가는 한번쯤은 꼼꼼히

생각해 볼 문제다. 왜냐하면 갈등과 분열을 가져오는 그 어떤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세상은 내게 유익한 결과만 얻을 수 있다면, 그 과정이야 어찌 되었든, 파헤치고 파헤쳐서 상처를 내고 피를 흘리게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절대로 그와같지 않다. 상처가 깊을수록 더욱 더 감싸고 덧나지 않도록 보살피고 지켜준다. 깨끗하게 치유될 때까지.

나성영락교회는 문제의 과장이 거세지자 은퇴장로들과 권사회를 중심으로 한 비상수습대책위원회(위원장 황경창 장로)를 구성하고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나섰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고난주일이 지나야 새소망의 부활주일을 맞이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빛을 피해 다시 스스로 도망치던 요나가 거친 폭풍속 배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이방신(神)을 섬기던 그들이 하나님께 허리 굽혀 경배했던 것처럼, 이번 나성영락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듣기에 불편한 일들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계기가 되길 기도한다. 이영인 기자



경기도 하남교회 주최 '제9회 행복한 목회자 세미나'가 4월 25~27일까지 하이 데저트 교회와 CJ그랜드호텔에서 열렸다.

“종말에 대한 美목회자들의 견해”

라이프웨이연구소 설문조사...25% 문자적 휴거 안 믿어·43% 환란전 휴거 발생할 것

여러 교단에 속한 美목회자들이 종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라이프웨이연구소(LifeWay Research)는 여론조사기관인 카리스마하우스북(Charisma House Book Group)을 통해 1월 한 달간 1천 명의 목사들을 상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문자 그대로의 휴거가 발생할 시기, 적그리스도의 속성,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천년 왕국의 속성과 시기 등에 대한 큰

입장차가 드러났다. 라이프웨이연구소의 조사 결과, 응답자의 25%는 문자적인 휴거를 믿지 않았으며, 43%는 환란 전에 휴거가 발생할 것을 믿었다. 12%는 적그리스도는 사람이 아닐 것이라고 믿었다.

라이프웨이 밥 스미에타나(Bob Smietana)는 "18%는 환란 이후 휴거가 발생한다고 생각했다. 휴거가 이미 일어났다고 믿는 이들은 1%,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임하기 전 환란 중에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이들은 4%였다.

응답자의 8%는 이 두 가지 견해 모두에 동의하지 않았고, 4%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종말의 시기에 대한 개신교 목회자들의 관점을 주제로 한 이번 연구는, 블레이즈(The Blaze) 편집장인 빌리 할로웰의 신간 발표를 앞두고 진행됐다.

'아마겟돈 코드: 종말의 응답에 대한 한 저널리스트의 탐구'라는 제목의 이 책은 곧 발간될 예정이다.

강혜진 기자

“한기총, 신천지는 사교(邪教) 집단 천명”

최근 신천지가 한국기독교연합회관과 CBS 본사 및 전국 지사 앞에서 궤기대회를 연 것에 대해,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이하 한기총)가 2일 "신천지는 한국사회에서 퇴출되어야 할 집단"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기총은 "이단 신천지가 공공연히 자신들의 세력을 과시하며

시위를 벌인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법의 테두리를 이용해 교묘히 한국교회를 비난하며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한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아울러 한국교회 성도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을 호도하는 신천지에 절대 미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관련기사 8면에 계속]

“예수영생을 따라 광야로 나선 순례자들의”
기독교 대한감리회 빈들교회
 담임목사 : 김 용 조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오전 11:00
 관상기도회(금) 오후 8:00

32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Tel: (818)518-0033

아이비 유학 Shelby Kwon Director

적성검사를 통한 진로 선택의 지름길
3-7-21 재능캠프 재능 개발·토크스, 일반인 Class
 (Verbal, Visual, Logical, Creative, Physical, Emotional)

USA Tel: (951) 383-5583
 Tel: (949) 329-8222
 Email: shelly.moon65@gmail.com
 www.Mylivdream.com

LA 500 Shatto Place, Suite 200
 Torrance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Irvine 17702 Cowan, Irvine, CA 92614

GOLDEN GATE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골든게이트침례신학대학원에서
 한영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목회학석사 (M.Div.) & 신학석사 (M.T.S.)
 위치: GOLDEN GATE SEMINARY S SOUTHERN CALIFORNIA CAMPUS
 골든게이트남가주캠퍼스 (251 S. RANDOLPH AVE, SUITE A, BREA, CA 92821)
 지원 마감일: 7월 15일 (예비지원서 [PRE-APPLICATION] 는 6월 1일)

> 한영이중언어과정은

- 미래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양성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본 과정은 주로 한영이중언어로 진행되지만 골든게이트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지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CONSULTATION: 714) 256-1311 EXT. 124 KEB@GGBTS.EDU
 FOR MORE INFORMATION: WWW.GGBTS.EDU/KEB

G2G-KODIA 통합 다음 세대 신앙 교육 위해

한인 이민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 사역해 온 두 단체, G2G교육 연구소(Generation to Generation Christian Education Center)와 북미한인기독교교육연구소(KODIA)가 통합한다.

미국에 있는 G2G와 캐나다에 있는 KODIA는 이미 북미주 한인교회 역사상 최초로 3년 과정의 청소년 교재를 개발하는 등 협력해 왔다. 2014년엔 10학년용 교재 “Living Between”(사이에서 사는 삶), 2015년엔 11학년용 교재 “Living Together”(함께 사는 삶)를 발간했고 올해 드디어 12학년용 교재를 출간하게 된다. 이외에도 2세 사역자 멘토링, 학부모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함께 일해 왔다.

이 두 단체는 오는 13일(금) 오전 10시부터 LA 한인타운 인근 올림



지난 2014년 6월, 최초의 한인이민교회 청소년 신앙 교재 Living Between 출판기념식에 참석한 노승환 소장(왼쪽)과 이학준 소장(오른쪽).

픽 길과 보니브래 길에 있는 라마다호텔에서 통합식을 연다.

G2G의 이학준 소장(풀러신학교 교수)과 KODIA의 노승환 소장(토론토밀알교회)은 “이민사회 다음 세대 신앙교육을 위한 공동 목적의 효율화를 위해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하게 됐다”고 전했다. 또 이들은 이번 통합을 계기로 차세대 교육에 협력할 후원 교회를 모집 중이다.

이 후원회와 관련해 박희민 목사가 발기인 대표를 맡고 있으며 새생명 비전교회, 뉴저지장로교회, 한길교회, 로스앤젤레스한인침례교회, 동양선교회, 토론도영락교회, 선한청지기교회, 보스톤한인교회, 아틀란타연합장로교회, 토론도 큰빛교회 등 LA, 뉴욕, 보스톤, 애틀랜타, 토론도 지역의 많은 교회들이 참여하기로 한 상태다. 김준형 기자

“행복한 목회자 세미나”

[1면으로부터 계속] 오이코스는 ‘확대된 가족’이란 말이다. 1차적으로는 개인적인 가족이 될 수 있고, 내가 일하는 일터, 내가 매주 방문하는 마켓의 직원도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머서 목사는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프로그램과 사역이 있다. 일주일 내내 바빴던 성도들을 교회의 수많은 프로그램으로 힘들게 한다”면서 “교회가 프로그램에 빠지면 주님의 명령과 목적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설문조사를 통해 교인들에게 교회에 얼마나 시간을 투자할 수 있나 질문했더니 5시간정도라고 했다. 그래서 이 5시간을 투자해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해 보자고 제안했고 교인들도 흔쾌히 동의하여, 5시간 중 의미있는 예배 1시간 30분, 의미있는 소그룹 모임 2시간, 은사에 따른 교회 사역 1시간 30분으로 각각 나누어 진행했더니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머서 목사는 예배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의 설교 주제는 동일하다. A-죄인임을 인정(Admit), B-예수님이 죄에 건지실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는 것(Believe), C-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선택하라(Choose)이다. 수년간 매주 이런 설교를 듣다 보면 누구나 쉽게 복음을 이해하게 된다. 그는 “성도들이 담임목사의 설교를 다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소그룹으로 은혜를 나누는 동안 담임목사의 설교를 완전히 이해하게 된다”면서 소그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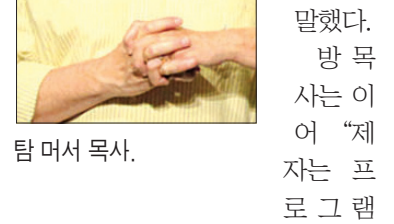
머서 목사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전도하는 것이다. 우리 교회는 오이코스를 통해서 완벽하게 전도하는 체질로 바뀌었다”면서 “우리 교회의 모든 오이코스는 담임목사의 설교 매뉴얼인 A-B-C를 통해 영혼 전도하는 것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안다”고 말했다.

세미나를 들은 목회자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은혜세계선교교회 이응남 목사는 “오이코스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목회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와 교회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강양규 목사(남가주새언약교회)는 “오이코스는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인교회가 다시 한 번 변화와 갱신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전

략이다. 이 전략을 한인교회에 어떻게 적용할 지 고민해 본다”고 했다.

세미나 마지막 날에는 방성일 목사(하남교회 담임)와의 좌담회도 이어졌다. 오이코스를 하남교회 목회에 적용했느냐는 질문에 방 목사는 “오이코스는 하나의 프로그램이나 워크샵이 아니다. 일단 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면서 “탐 머서 목사의 제자는 전도하는 사람이다. 한국교회는 너무나 많은 설교를 들어서 머리가 커진 바리새인들이 많다. 전도

하는 교회의 본질로 다시 돌아가고자 우리 교회도 몸부림을 치고 있다”고 말했다. 방 목사는 이어 “제자는 프로그래



탐 머서 목사.

으로 만들어질 수 없다. 실질적으로 내 삶을 통해서 어떤 영향력을 줄 것인가.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삶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오이코스가 전도의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방 목사는 또 “이민목회를 하면서 내 자신이 무력해지는 것을 많이 느꼈다. 모든 에너지가 소진된 채 그저 교회를 지키는 나 자신을 보게 됐다. 그렇게 되면 스스로 무너지게 마련이다. 목회자는 반드시 자기를 위한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하남교회는 내년에는 유럽 지역 한인 목회자들을 섬기며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가게 된다.

이번 행사와 관련, 미국 측 협력 교회인 한마음제자교회 담임 광부환 목사는 “이민교회 목회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보람을 느낀다. 목회를 정말 고민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많음을 다시 확인하는 기회였다. 이들이 지치지 않으면 복음은 전파되고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리라 본다”고 밝혔다. 이인규 기자

살림장애인선교회 5月光정의 달 제17회 살림경로잔치 개최

살림장애인선교회(대표 박모세 목사)가 제17회 살림경로잔치를 3일 LA 한인타운 내 한 식당에서 개최했다.

선교회가 섬기고 있는 노인 회원과 함께 이날은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도 초청해 선물을 나누며 위로하고 격려했다. 이 선교회 대표 박모세 목사는 “누가 내 가족인가”란 설교에서 “우리가 연약하지만



박모세 목사가 회원들에게 선물을 증정하고 있다.

언제든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 품고 살자”고 말하며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김준형 기자

세상을 놀라게 하라 OC교협 주최 영적각성대성회 강사 원팔연 목사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민승기 목사)가 지난달 28-30일까지 나침반교회(담임 민경영 목사)에서 “세상을 놀라게 하라”라는 주제 아래 2016 영적각성대성회를 개최했다.

강사는 전주바울교회 원팔연 목사가 초청됐다. 원 목사는 전주 바울교회를 세계선교의 비전으로 호남지역 최대의 교회로 성장시켰다. 또한 오는 7월 뉴욕 할렘루아성회



초교과 여성 구성 미주여성교람(지휘 오성애)이 합창을 하고 있다.

의 주강사이기도 하다. 원 목사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가량 “세상을 놀라게 하

는 목회” 주제로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며 침체된 이민목회에 활력을 불어넣어줬다.

<h4>아름다운 늙음의 길...뷰티풀 에이징</h4> <p>-일시: 5월 9일(월) 오후 1시 30분-5시/11일(수) 오후 12시 20분 -강사: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원로목사) -장소: 엘바인침례교회 -주소: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교회전화: 949-857-9425/웹사이트: www.irvinechurch.com -문의: 강일성 목사(253-426-8111) -회비: 50불(일반) 30불(목회자)</p>	<h4>이용규 선교사 초청집회</h4> <p>-일시: 5월11일(수) 저녁 7시 -강사: 이용규 선교사 '내려놓음'의 저자 -장소: 엘바인침례교회 본당 -주소: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문의: 949-857-9425</p>
---	---

SAS 인가컨설팅

비영리단체, 선교회, 연구소, 종교특례대학, 직업학교, 일반대학 설립/인가

대표 Paul Kim, Ph. D summitus37@gmail.com

Tel : (213)531-7215, (909)993-3028
2975 Wilshire Blvd, Suite B01, Los Angeles, CA 90010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교회세우기 세미나 보기입니다

김형국 목사

- 하나님 나라 복음 DNA Network 대표 목사
- 나들목교회 대표 목사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후 IVF (한국기독교학생회)에서 5년간 간사로 활동했다. 이후 미국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 M.Div.와 신학 박사 Ph. D. 학위를 받았다.

귀국 후 사랑의교회에서 '찾는이' 사역을 하던 중 '성경적이고 현대적인 도심 공동체'를 세우라는 부르심을 받아 2001년 나들목교회를 개척하여 지금까지 섬기고 있다.

강의내용

- 건강한 교회 세우기를 위한 첫 걸음
-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엡2:1-10)
- 로마서 강의 1 - 바울이 풀이준 하나님 나라의 복음
- 로마서 강의 2 - 바울의 복음과 우리 사역자의 삶과 사역
- 하나님 나라 신학
-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사람 세우기
- 하나님 나라 운동의 핵심 - 복음 전수
- 하나님 나라 복음의 실제 - 풍실초와 풍실초, 그리고 풍실기

* 강의 내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최 : 하나님 나라 복음 DNA Network
일시 : 2016년 5월 24일(화) - 26일(목)
문의 : 김대성 목사 (213-999-6214, daesongdoo@gmail.com)
장소 : LA 온누리교회 743 S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57
참가비 : \$100

“위기의 한반도? 통일임박 신호”

'힐링 킹덤' 사역으로 북한 치유할 사명자 양성 통해 다가올 한반도 통일 미리 준비해야 해

북한의 핵 위협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그날까지선교연합기도운동(UTD-KCC)의 대표 손인식 목사는 오히려 “통일이 임박했다”고 해석했다. 통국기도회, 햇볕대회 등 미국 정계에서도 주목하는 북한인권운동을 벌이고 있는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통일 후’에 대한 이야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손 목사는 “지금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고 미사일을 쏘는 등 평화를 위협하고, 통일은 더욱 멀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우리에게 거꾸로 통일이 임박했다는 신호로 보인다. 북한의 발악은 그만큼 현재 정권이 불안정하고 붕괴가 가깝다는 뜻이다. 통일의 주역은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 이시다. 그분은 더 이상 자신의 자녀들이 짐승처럼 죽어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고 단언했다.

또 그는 “통일이 가까워지고 있으므로 '통일을 위한 전략'과 함께 '통일 후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생각함과 동시에 정말 통일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그날까지의 주요 사역인 통국기도회와 탈북지원사역은 통일을 위한 전략에 속한다. 통국기도회로 하나님의 구원이 북한에 임하길 기도하고 전 세계에 북한 인권의 실상을 알린다. 또 북한 주민들이 탈북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돕는다. 손 목사는 “탈북자가 3만 명만 되어도 전 세계가 북한의 실상을 확실히 알게 된다. 6만 명이 되면 북한은 붕괴될 수밖에 없다. 또 그 탈북자들이 해외에서 북한 내의 가족을 위해 송금하는 외화가 장마당을 형성하고 이로 인해 북한의 경제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었다”고 설명했다.

통일 후의 전략은 무엇일까? 손 목사는 “북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치유할 리더들을 미리 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지난 4월 그날까지가 처음 시작한 사역이 ‘힐링 킹덤’이다. 탈북 여성들을 위로하고 치유할 뿐 아니라 그들에게 동족을 향한 소명감을 심어주는 일이다.

손 목사는 “탈북자 중 72%가 여성인데 이 여성들 대부분이 심한 우울증, 자살 충동을 겪고 있으며 이 수치는 남한 여성 자살률의 무려 3.2배나 된다. 탈북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뿐 아니라 탈북 후에도 중국에서 인신매매를 당하고, 맞으며, 성적 유린을 당한 일, 자녀와의 이별 등으로 인한 충격 때문이다. 탈북 당시에는 생존 문제 때문에 억눌려 있었는데 자유를 찾으니 그 아픔이 터져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힐링 킹덤’ 사역은 경기도 광주 광림수도원에서 4월 4~6일까지 50명을 대상으로 처음 이뤄졌다. 탈북자 출신의 목사, 교수, 여성 지도자 등이 강의하고 탈북 여성 50



‘그날까지선교연합 기도운동 대표 손인식 목사. 손 목사는 요즘 탈북 여성들을 치유하는 사역에 집중하고 있다. 그는 힐링 킹덤(Healing Kingdom)에 있던 이들을 힐링 킹덤(Healing Kingdom)으로 데려오는 사역이라고 설명했다.

명, 자원 봉사자 80명이 함께 기도하며 교제했다. 이들이 북한에서의 삶을 나누며 과거의 상처를 꺼내놓는 시간은 눈물 바다였다.

그러나 정작 클라이맥스는 “죽음을 건너온 당신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통일의 때에 북한을 구하라고 예비해 두신 에스더 왕비”라는 새 정체성을 심어주며 왕관을 씌어 주는 에스더 화관식이었다. 치유를 경험한 탈북 여성들이 이제 타인을

치유할 사람으로 가치관이 변화되는 시간이었다.

손 목사는 “여성이 치유되면 남편과 자녀, 교회와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 사역은 나중에 통일이 되면 북한에서 가장 먼저 펼쳐져야 할 사역”이라 강조했다. 한편 그날까지의 7월 초에 한국에서 한 차례 더 이 행사를 열고 10월에는 유럽으로 건너가 탈북 여성들을 섬길 계획이다.

김준형 기자



과거에 열렸던 사랑의 마당 축제에서 참가자들이 함께 모여 기념촬영을 하던 모습.

제30회 사랑의 마당축제

남주 지역에서 장애인 사역을 하고 있는 26개 교회와 12개 선교 단체가 연합해 제30회 사랑의 마당 축제를 연다. 이 행사는 매회 1,500여 명의 장애인과 봉사자가 참여한다. 이번에는 5월 7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사우스

엘몬테에 있는 위티어 내로우 공원(Whittier Narrows Recreation Area)에서 열린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1인당 5달러, 자원봉사자는 무료다. 문의는 전화 657-400-9570이나 213-368-2607로 하면 된다.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는가”

제4회 효사랑 글짓기·그림 공모전
글짓기 한국어·영어 중 선택, 접수는 5월 20일까지

효사랑선교회가 올해도 ‘효 글짓기 그림 공모전’을 연다. 벌써 4년째 열리고 있는 이번 대회의 주제는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는가”이다.

글짓기는 한국어 영어 중 원하는 언어로 작성해도 되며 12~13 폰트 사이즈로 레터 3장 분량이면 된다. 그림은 크레파스, 수채, 유채, 드로잉 등 어떤 재료를 사용해도 좋으며 그림 뒤에 그림의 내용을 10줄

이내로 설명해야 한다. 심사는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장애인 청소년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5월 20일까지 접수를 받으며 작품은 효사랑선교회(7342 Orangethorpe Ave. #B113 Buena Park, CA90621)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글짓기는 이메일 hyosaran-gus@gmail.com로 보내도 된다.

참가 학생 전원에게 기념품과 상장이 주어지며 대상, 최우수상, 우

수상, 장려상 등에는 노트북이나 태블릿 등의 상품이 주어진다. 시상식은 6월 11일 홀리튼장로교회(담임 노진걸 목사)에서 열린다.

이번 공모전의 글 심사는 임영호 목사(미주한인기독교문인협회 전 회장), 그림 심사는 안병성 화백(충현선교회교회 장로)이 맡는다. 심사 기준은 주제에 맞게 부모님으로부터 물려 받은 영적, 육적 유산을 잘 표현하면서 이를 자기 정체성, 올바른 가치관으로 잘 승화시키느냐다. 자세한 문의는 효사랑선교회 전화 714-670-8004, 562-833-5520로 하면 된다.



(왼쪽으로부터)안병성 화백(그림 심사), 김영찬 목사(효사랑선교회 대표), 임영호 목사(글짓기 심사)가 이번 공모전에 관해 설명했다.

· 이번에는 무슨 차로 팔까? · 요즘 스페셜이 있는 차가 무엇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 어떤 해결을 한 말에 남게 드리겠습니까.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현관리 다 둘러보시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6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찰리 정

푸엔테 힐스 현대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213-389-8275
520 S. Virgil Ave., #305 Los Angeles, CA 90020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환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치진 턱선을 올려 젊음 유지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보세요.

한방감기 특별처방!!
(5일분-\$35)

약력 북경중의약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삼라한의대) 교통사고 · 각종보험 · 여행자보험

www.e-nca.org

Irvine
La Canada

LA 학부모님,
아직도 학군 따라
이사가십니까?

여름학교
2016년 5월 31일~7월 22일

3rd St
Shatto Pl
Vermont Ave
6th St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갖춘 명문사립 NCA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 아이비리그 및 UC 계열대학에 진학하고, 타 사립학교 대비 월등히 경제적인 교육비로 소수정예의 교육이 가능한 NCA에서 가르치십시오.

- 졸업생 평균 GPA 4.34 및 SAT 평균 2,048점 기록 (전미주 평균 1,500점)
- 지난 17년간 전 졸업생이 UC 계열과 유수의 명문대학에 진학
- LA에서 유일하게 국제학사(IB) 및 AP 프로그램 동시 실행
- 학생과 교사 비율 평균 10:1로 소수정예의 질 높은 교육 환경
- 새 학기 보충수업 위주의 썸머스쿨 운영 (필드트립 등 다양한 액티비티 제공)
- 편리한 교내 애프터스쿨 운영 (월 \$75~\$150 정도의 경제적인 비용)
- 미주 최초 한인이 설립한 비영리 기독교 사립학교로서 영성 함양

NCA 사립 초중고등학교
NEW COVENANT ACADEMY Since 1999
3119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명문대 입학은 킨더부터 시작됩니다!
K-9th 모집

입학 문의 (213) 400-3588, (213) 487-5437 **NCA 킨더가든 모집** 명문대 입학은 킨더부터 시작됩니다!



남북 평화통일 염원 2016시애틀 통국 기도회가 1일 시애틀연합장로교회(담임 장운기 목사)에서 열렸다.

“평화통일 위한 간절한 기도...남북통일의 문 열 것”

“통일이 가까이 왔습니다. ‘통일을 위한 전략’과 함께 ‘통일 후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평화 통일을 위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남북한 통일의 문을 열 것입니다. 한민족의 통일은 정치 지도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북한에서 신음하는 우리 동포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 워싱턴 주 시애틀 지역 교회들이 기도의 손을 들었다. 지난 1일 시애틀 연합장로교회에서 진행된 시애틀 통국기도회에는 시애틀 지역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조국의 평화 통일과 북한의 교회 재건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그날까지선교연합(국제대표 손인식 목사)과 해외 3,000인 목사단이 주관하고 시애틀기독교회연합회(회장 변인복 목사)와 시애틀한인목사회(회장 이현 목사), 고향선교회가 주최한 통국기도회는 시종 뜨거운 열기 가운데 남북한 통일을 위해 부르짖어

기도했다. 손인식牧사는 “당신입니다(에 4:14)”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남북 통일의 기도 주체가 되어야 하는 한국 교회가 잠들어 있고 허영과 교만에 빠져있다”면서 “한국 교회가 북한 주민들의 심각한 인권 유린의 상황을 가슴에 끌어안고 깨어나 회개하며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인식牧사는 “한반도 통일의 완성은 정치적, 물리적 통일만이 아니라 북한 땅에 교회가 재건되고 부흥이 다시 한 번 일어나는 것”이라며 “전쟁이 없는 통일, 끔찍한 피 흘림의 통일이 아닌, 남북한이 진정으로 하나 되는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이를 통해 통일 한국은 남북한 청년들이 함께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로 굳게 일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애틀기독교회연합회 변인복牧사는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가 한국 교회, 전 세계 교회와 함께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북한 동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탈북자들의

절규와 간증을 들으며 통일을 기도해야 한다”며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로 한 민족의 평화통일과 북한 땅에 교회 재건을 위해 민족의 고통과 아픔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민족 가운데 일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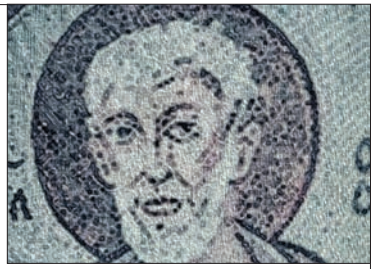
통국기도회는 최인근 목사, 이현 목사, 황경수 목사가 각각 “주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소서! 한국교회가 깨어나 회개하게 하소서! 북한의 지하성도들을 구원 하소서! 북한땅에 교회들이 재건 되게 하소서! 전쟁 없는 통일을 주옵소서! 남과 북의 교회들이 합하여 제사장 민족이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했다.

한편 지난 4월 덴버에서 시작된 통국기도회는 시애틀에 이어 오는 5월 15일에는 오레곤에서, 7월에는 워싱턴 DC와 볼티모어에 이어질 예정이다.

김브라이언 기자

오네시모의 독백

김영언 저



11. 사마리아와 갈릴리

알렉산드리아의 70명의 학자들이 그리스어 번역에 참여해 70인역이라고도 불리는 이스라엘의 율법과 역사를 두루 살피고 있다. 잘 몰랐던 이스라엘 역사를 자세히 보니 한가지 의문이 생긴다. 솔로몬왕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이스라엘은 북왕국이 먼저 앗시리아에 멸망한 뒤 철저히 유린되었다. 로마 치하의 현재 지명으로는 북왕국지역을 다시 민족과의 혼혈정책이 실시되어 더욱 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남유다와 거리를 두게 되는데, 훗날 선지자 느헤미야에 의해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이 추진될 때에 사마리아의 산발랏을 중심으로 웨방이 있었고 그 후로 남북이 더욱 거리가 멀어진 것으로 보인다.

레헴이라 하여도 실제 예수의 고향은 갈릴리 나사렛이었고 예수도 본인의 고향을 그렇게 여긴 것으로 보인다.

참 신기한 일이다. 70인역에서 그렇게도 저주를 받았던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어 자신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있다고 자부하는 남유다의 바리새인들을 준엄하게 혼내는 이 역사의 아이러니가. 어찌 생각해보면 신실한 바리새인이 보기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스스로를 칭하는 이 북이스라엘 출신 청년이 얼마나 받아들이기 어려웠을까. 따라다니는 수제자들은 시골 갈릴리 호숫가의 어부들이었으니 진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려 노력했을 그들이 보기에 얼마나 촌스럽고 조악했을 것인가. 하나님은 왜 아들의 고향으로 북이스라엘을 선택하였을까.

내 의문은 여기서 출발한다. 남유다 출신의 요셉과 마리아가 무슨 연유로 저 북쪽 나사렛에 살고 있었는지는 알 길이 없다. 마리아가 예수를 임신중일때 가이사르의 명령으로 인구조사에 임해야 했고, 법에 의해 아버지 요셉의 고향인 남유다 땅 베들레헴에 도착한 당일 예수가 태어난 것으로 전해진다. 부모가 남유다 출신이고 비록 그가 태어난 곳이 유다 땅 베들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여다보니, 자신을 따르는 것이 좁은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예수의 말씀이 마음에 더욱 깊이 와 닿는다. 하나님은 참으로 적은 수의 제자를 찾으시는 것인가. 로마제국의 각 도시에 감자기 늘어나기 시작하는 기독교인들이 모두 그러한 심각한 각오로 이 도시를 찾는 것인지 문득 마음에 의문이 떠오른다. <계속>

시카고벤엘장로교회 감격의 입당예배

시카고 벤엘장로교회(담임 최병수 목사)가 입당감사예배를 1일 주일 오후 5시에 드렸다.

이 교회는 2014년 시카고에 있는 현 교회 건물을 매각하고 팔레타인에 있는 건물을 구매하기로 했다. 팔레타인 지역 주민공청회까지 만장일치로 통과했지만 건물 용도 변경과 관련해 2015년 시의회가 6대 1로 반대하면서 구입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교회는 시의회의 결정에 법적 대응을 하지 않고 건물 구입을 포기하려 했지만 한 인권변호사가 지역 신문에 보도된 이 사건을 읽고 도움을 주기 시작하면서 기적적으로 시의회의 만장일치 허가를 받았다. 이런 어려움을 겪으며 이뤄진 입



벤엘장로교회가 팔레타인의 새 건물로 이전하며 입당감사예배를 드렸다.

당이기에 성도들의 감격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더 컸다.

이영재 목사는 “교회의 시대적 사명(고전1:1-3)”이란 설교에서 “교회는 하나님이 피로 사신 곳이

며 진리의 기둥과 터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가르치고 그 말씀을 세상 끝까지 전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호 기자



김영언 변호사

저자 김영언 집사는 현재 시카고한인교회에 출석하고 있으며 법무법인 미래의 현직 변호사이다. 이 소설은 노예에서 주교가 된 오네시모의 드라마틱한 삶을 통해 1세기 로마 제국과 예수사후 교회의 성립시기에 그가 느꼈을 세상과 신, 그리고 교회에 대한 생각들을 당시 사실관계에 입각하되 재미있게 추측하여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그려나가고 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러하듯 오네시모에게도 인생과 구원과 신에 대해 씩씩하던 모습이 있었을 것이다. 저자는 범조인 담게 모든 법학의 근본이 된 로마법의 주요개념도 에피소드와 함께 실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독교의 성취와 실패, 고민과 가르침에 대한 다양한 질문과 성찰을 시나브로 풀어 나가고 있다.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이원삼, 박기호, 방지각, 김준연,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해성
발행인 : 이인규
지시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Welcome to a better world

모든 사용자를 만족시키는 업무 효율의 혁신

KONICA MINOLTA bizhub

최첨단 고해상도 칼라 디지털 복합기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크
최고의 인쇄 품질과 획기적인 비용절감

Green M. Wild IMAGE SYSTEMS
Sales Representative : Eric Kim
GreenMWild@Gmail.com
TEL : 213 705 7778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한 혜택
Used printers trade in & purchasing

bizhub C554e / C454e / C364e / C284e / C224e

C554e Colour B&W 55/55 ppm
C454e Colour B&W 45/45 ppm
C364e Colour B&W 36/36 ppm
C284e Colour B&W 28/28 ppm
C224e Colour B&W 22/22 ppm

Dual Scan ADF 160 ppm Duplex
Dual Scan ADF 80 ppm Simplex

USB Print, Colour Internet Fax, Mobile Support

Simitri, bizhub Marketplace

달란트 결산의 교훈

마태복음 25:14-30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본문은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가셨다가 재림 하실 때에 모든 믿는다는 사람들과 신앙생활의 성과에 대한 결산을 보시게 될 때 일어나게 될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을 세 가지 유형으로 설명하시면서 한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맡기셨다고 하십니다.

주시고 가신 것이 금(gold)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어에는 은(silver)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이든 은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구원의 은혜를 표현하는 상징입니다. 그리고 왜 차별되게 한 사람은 다섯 개, 한 사람은 두개, 한 사람은 한 개를 주고 가셨는지 생각해 봅시다. 본문에는 하나도 주지 아니한 사람도 있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영적으로 구원 얻은 사람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남은 생애를 은혜 받은 그 시간부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잘 가르쳐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재능대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재주와 능력을 따라 다섯, 둘, 하나를 주셨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타국에 간 분이 돌아 왔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언질입니다. 재림하셔서 그 사람들과 회계 결산을 보게 되는데 제일 먼저 다섯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신나게 달려와서는 열개를 예수님 앞에 내 놓습니다. 그 모습은 아주 당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소서 떠나신 때에 제게 다섯 개를 맡기셨는데 떠나신 이후 지금까지 열심히 부지런히 일해 가지고 다섯 달란트를 더 늘려서 보소서 열 달란트를 가져왔습니다.” 그 때에 예수님이 정말 감동적으로 “참으로 잘 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것에서 크게 충성했기 때문에 앞으로 다섯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길 것이고 또 네 주인, 예수님의 즐거움에 영원히 동참하라”는 엄청난 칭찬과 미래에 대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두 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는 당당하고 떳떳해서 네 개를 예수님 앞에 펼쳐 드리고 “여기 받으소서. 제게 두 개를 주셨는데 두 개를 더 늘려서 네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똑같은 축복을 말씀 하셨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것에 충성했기 때문에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라 그리고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 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수고에 대한 예수님의 축복은 다섯 개를 열 개 만들었거나 둘로 네 개로 만들었거나 똑같았습니다. 한마디도 틀림이 없었습니다.

이때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은 돈 주인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는지 어디론가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즉시 가서 한 달란트를

땅 속에다가 파묻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성과를 위하여 일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도 하늘 소망의 구원을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의 대가로 허락 받았고 또 그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김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섬길 수 있는 재주와 능력은 한 달란트로 이미 받아졌는데 섬길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은혜는 받았는데 안 받은 걸로 하고 땅속에 갔다 묻어버렸습니다. 왜 묻었을까요? 자기가 욕심이 원하는 세상 조건을 위한 계획이 많고 욕심이 컸기 때문에 영적인 성과를 위한 일은 귀찮고 나하고 상관없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늘나라 갈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땅속에 묻고 자기 욕심의 입장을 욕구대로 채워보겠다고 부지런히 일하느라 영적인 일은 그냥 땅 속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돌아왔다는 소리를 듣고 급히 한 달란트 묻어놓은 곳으로 달려가서 파내서 흙이 묻은 돈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변명도 많고 여러 가지로 수식어가 많습니다.

교회에서 영적 소망을 깨닫고 믿음으로 하늘나라에 영광스러운 자격으로 들어가기로 진심으로 열망하는 신앙인은 말이 없습니다. 누가 쥐어박아도 같이 맞서 싸우려하지 않는 것은 자기 받은 은혜 손실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또 뭐라고 모략중상을 해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줄망정 못들은 것으로 하고 항상 영적인 소망과 영광스러운 결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놓으시고 가장 애타게 소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신령한 성과, 영적인 성과만을 위하여 그저 불철주야, 노심초사하고 분골쇄신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데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말이 많은 것을 보니까 그 일에 전혀 무관심했고 무성의했고 성과가 없었기 때문임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이 24~25절에 “...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데서 거두고 헤치지 않은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때에 예수님의 첫 마디가 “악하고 게으른 종아”하십니다. 이 사람은 결코 게을리 살지 않았을 겁니다. 다만 자기 욕심과 세상 조건을 위하여, 자기 입장과 명분, 이속을 챙기기 위하여 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게으른 종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고난과 희생을 통하여 네 죄를 대속하고 너를 하나님 앞에 믿음의 아들로 팔로 세워놓고 내가 네게 이 달란트를 주고 간 것은 하나님이 너를 택하시고 구속하신 기대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이 너를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성과를 이루어

드리는데 사용해 달라고 달란트를 주고 갔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땅 속에 파묻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전혀 무관심하고 사명감도 없고 기대감도 없이 결국 불신자 같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일에 아무리 부지런을 떨어도 예수님의 판단은 영적 성과를 위한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흐뭇하게 헤드리는 일에 게으른 사람은 그냥 악하고 게으른 자라고 그렇게 처리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데서 거두고 헤치지 않은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번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말하자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손해 보게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본전 갖다 돌려 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결산의 기준으로는 예수님께 손해를 끼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습니다. 달란트는 성령의 은사와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달란트는 성령님의 재주와 능력인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에게서 성령을 거두는 것입니다. 성령을 거두면 그 사람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성령을 거두면 지옥으로 갑니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마25:29)

열 달란트 만든 사람은 덤으로 한 달란트를 더 얻었습니다. 세상 분배의 이치는 본전은 본전대로 돌려주고 늘린 이익을 절반씩 나누는 것이 세상 이익 분배의 이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본전과 그가 애써 노력해서 늘린 이득까지 몽땅

되돌려 주십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엄청난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앓고 있으리라 하니라”

바깥 어두운 곳은 흑암이라고 합니다. 캄캄한 곳에 들어가서 비로소 자신을 위해서 부지런을 떨고, 이를 악물고 벌여 자신의 몫이라고 챙겨놓은 것들이 소용없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주와 능력까지 주시면서 영적인 성과를 위하여 일할 기회를 주셨는데 그걸 무시하고 하늘나라를 바라보지 않았고, 영적인 소망과 기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목이 달란트 결산의 교훈입니다. 달란트를 받았다는 것은 구원을 주셨다는 것이고 구원 얻은 사람은 영적 성과를 위하여 힘써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달란트 그 자체가 기술과 능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6~30절에 “웁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나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어리석은 종과 같이 어두운데로 쫓겨나 슬피 울며 살아가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맡기신 달란트로 늘린 성과뿐 아니라 본전까지 다 넘겨주시면서 또 게으른 자의 본전까지 빼앗아 덤으로 우리에게 주시려는 예수님을 잘 믿고 섬겨 달란트 결산의 때에 흐뭇하도록 합시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LA 미주 복음방송 AM1310	화요일 오후 7시30분
미국 신문 설교	5면 설교	오라일리 칼럼 설교	금요일 오후 2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미주 제 59차 성경완독집회
2016년 6월 13일(월)~16일(목)

3박 4일

성경 66권 완독

신구약 66권 전권을 3박 4일(약 50시간)에 통독하는 은혜와 감격을 체험합니다. 성경읽기가 재미있고, 성경을 암송하고 싶어지며,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는 훈련입니다. 본 성경통독과 암송훈련을 통하여 신앙생활에 새로운 기쁨과 능력을 힘입게 될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삽시다”



강사 안성기 목사 미주요한선교단 대표, 강사 김동진 목사 한국요한선교단 대표, 강사 임현영 선교사 우크라이나 선교사



강사 이희철 목사 갯스윌연합교회 담임, 강사 김동원 목사 헬리웃효순장로교회 담임

교회 찾아오시는 길 Tel : (213)268-3589



1101 S. Elden Ave., L. A., CA 90006

- 일시** 2016년 6월 13일(월)~16일(목)
- 장소** 헬리웃효순장로교회(담임:김동원 목사) 1101 S. Elden Ave., L. A., CA 90006 Tel : (213) 268-3589
- 주최** 미주요한선교단(대표 : 안성기 목사) The John's Mission USA
- 참가대상** 교역자, 선교사, 제직, 평신도, 학생 및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
- 참가비** 1인당 \$70, 부부 \$100
- 등록** 6월 13일(월) 당일 오전 9시~10시
- 준비물** 성경(개역)과 찬송, 세면도구, 담요 또는 슬리핑백
- 개회예배** 6월 13일(월) 오전 10:00
- 수료식** 6월 16일(목) 오후 6:00
- 특강** 성경통독 세미나 - 성경을 재미있고 은혜롭게 읽는 방법, 성경암송 세미나 - 성경을 마음에 간직하고 새기는 방법, T-QT 세미나 - 다툼의 경건생활 모범

주최 : 말씀사랑운동 미주요한선교단, 한국요한선교단 후원 : 기독일보, 갯스윌연합교회, 헬리웃효순장로교회

Church
Everyday

사역자 청빙 광고

Los Angeles Northridge 지역의
에브리데이 교회에서 사역자를 기다립니다.

1 목회부 사역자(남자 1명, 여자 1명)

- a. 자격요건
 - i. 정규 신학 대학원에서 신학석사 (M.Div) 이상의 학위를 받으신분
 - ii.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로 미국내에서 목회하는데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 b. 지원서류
 - i. 이력서 w/가족사진
 - ii. 신앙고백 및 자기 소개서
 - iii. 목회자 추천인 2명 (이름, 소속단체, 전화번호)

2 기타내용

- a. 청빙 신청 마감은 2016년 5월15일까지입니다.
- b.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c. 서류를 보내주시길 이메일 주소:
(churcheveryday99@gmail.com)
*이메일을 통해서만 신청 받습니다

에브리데이 교회

토브 성경 연구

Tov Bible Study



강신권 목사

- 히브리식 사고 : 3통 사고
- 히브리식 체현 : 5특체현으로 성경 원전 해석
- 현재 : 요한계시록 특강(매주 수요일 7:30pm)
- 강사 : 강신권 목사
- 장소 : WBPC 세계성경장로교회

Tel(562)761-5242
Tel(213)739-0403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성경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성경공부를 통해 영성과 인성교육을 하며, 골프를 통해 집중력과 체력향상을 시켜줍니다. 귀한 자녀에게 이 두 가지를 함께 가르치는 전문인에게 믿고 맡겨주십시오. 달라지는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픽업가능

- 문의 : 최 제이콥 Professional (310-598-0746)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 Players Tour
12~14살, 18홀, 1~2명 모집
- 피아노반주 가능한 전도사님을 찾습니다.



<최 제이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ae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신학박사(D.D.)
현 '제일좋은 예닮교회' 담임목사

•이정근 목사의 조각글

성공, 실패, 성공적 실패



이정근 목사
성결교회

한때 적극적 사고방식(positive thinking)이 목회의 유행어가 된 적이 있었다. 그것과 비슷한 것이 '불가능은 없다'를 앞세운 '가능성의 사고방식'(possibility thinking)이었다. 로스앤젤레스 근교에 있는 가든 그로브 수정교회 술러 목사가 바로 그것 발을 펼칠 휘날렸다. 게다가 '능력 목회'(power ministry)라는 것도 있었고, 삼박자 축복을 핵심으로 삼는 번영신학(theology of prosperity)도 있었다. 세계 최대 교회 담임목회를 했던 조용기 목사가 그 대표였다. 그런 것들은 모두 성공주의 목회라는 이름을 붙일 만하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시대가 되었다. 성공주의의 기독교판인 교회성장운동이 '건강교회 운동'으로 바뀐 지는 꽤 오래 되었다. 술러 목사가 부끄럽고 초라한 모습으로 목회마당으로부터 퇴장 당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갈3:3) 초대형교회 거인목사들이 줄줄이 지옥의 나라로 떨어져가고 있다. 성공주의 목회의 장례식이 아닌가. 그렇다고 성공주의 반대자들이 날릴 일은 전혀 아니다. 적극적 사고방식을 부정하고 성공주의를 비판하는 이들에게 꼭 물어보는 말이 하나 있다. 당신은 정말 무슨 일이든지 실패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는 뜻이냐? 당시 자녀들이 무슨 일이나 연속하여 실패하면 '짜짜짜'하고 박수를 치겠는가.

예수님은 인류 최대의 성공자이셨다. 예수라는 이름이 그분 탄생 이래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얼

마나 큰 성공인가. 예수님에게 목숨을 바쳐 충성했던 사람 곧 순교자들이 가장 많은 것만 보아도 그분의 성공은 충분히 입증된다. 예수님을 섬기는 건물들이 제일 많다는 것, 그분께 헌납된 재정이 제일 많다는 것, 예수님을 연구하여 써놓은 책도 제일 많고, 예수님을 가르치는 학교가 제일 많다는 것, 예수님이 주인공인 성경이 가장 많이 보급된 책이라는 것... 불과 3년이라는 짧은 생애에 가르치고 행동하셨는데도 어느 누가 감히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성공에 성공을 거듭하셨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다. 예수님은 실패주의자도 아니 참패주의자도 아니다. 실패의 정도도 실패의 쓴 잔을 연속하여 마시셨다. 가족과 친척들에게 미친 사람대접을 받았다. 동네 사람들은 남떠러지에 밀쳐 죽이려고 했다. 협력자들보다도 반대자들이 훨씬 많았다. 특히 사회 고위층 지도자들이 그를 제거하려고 이를 악물었다. 그 목에 현상금이 걸려 있는 중범죄자 취급을 받았다. 탕자가시로 된 모자를 쓰셔야 했고, 온 몸에서 생괴가

흐를 정도로 채찍을 맞았다. 침뱀을 당하고, 감옥에 처박히고, 온갖 모욕을 당했고, 제자에게 배신당하고, 사형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공개처형 되었다. 실로 그의 짧은 생애는 실패, 실패, 또 실패로 점철되었다.

만약 그것으로 끝났다면 예수님은 2천년이 지난 지금쯤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인간이 되었으리라.

그러나 그는 완전실패했다고 세상 사람들이 단정했던 그 순간에 바로 '다 이루었다' 곧 '나는 성공했다'고 명백하게 선언하셨다. (요19:30) 십자가 처형이 바로 '최대성공을 목표로 한 의도적 실패'였다. 그런 뒤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늘의 태양처럼 확실한 성공을 입증하셨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지으셨다. "모든 고난은 야기 낳는 것과 같다."(요16:21-23)

예수쟁이들은 누구와 경쟁하든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성공주의의 깃발을 휘날렸기 때문만이 아니다.

오히려 '성공적 실패주의'와 '실패적 성공주의' 깃발을 휘날렸기 때문이다. 진통을 많이 하고 낳은 아기를 부모가 더 사랑하고 잘 키우듯이 예수님은 고통을 성공의 자본으로 삼으셨다.

세상 사람들은 실패는 걸림돌(stumbling stone)로만 여기지만 예수쟁이들은 실패조차 디딤돌(step-ping stone)로 삼고 더욱 대담하게 전진해 나아간다. 참패의 폭이 클수록 성공으로 가는 더욱 튼튼한 디딤돌이라는 뜻이다.

• 김인수 교수의 한국교회사

연합운동의 결실(II)



김인수 교수
전 미주장로회신학대 총장

전 회에서 기술한 초기 한국 선교사들의 연합 사업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어졌다. 그 중 괄목할 만한 사항은 지역분할과 교인 교환이다. 여러 선교부들 간에 맺은 예양협정(禮讓協定: Comity Plan)에 따라 1905년 장로교회와 감리교회는 선교 지역을 분할했다. 북장로교회는 서울, 경북, 황해, 평안도 지방을, 남장로교회는 전라도 지방을, 캐나다 장로교회는 함경도 지방을, 호주 장로교회는 경남 지방을, 북감리교회는 강원도 원주 지방, 충청도, 황해도 일부, 평양 지방을, 그리고 남감리교회는 강원도 지방을 맡아 선교하기로 합의했다.

지역 분할이 끝난 후 그 지역 내의 교인들을 바꾸기 어려운 일이 남았다. 교인을 바꾼다는 말은 장로교회와 감리교회가 각각 새로 정해진 구역에 따라 본래 감리교인이 장로교 구역에 있으면 장로교회로, 본래 장로교인이 감리교 구역에 있으면 감리교회로 교회의 직을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남장로교회와 북감리교회와의 예양협정에 따라 1908년에 북감리교회가 일하던 전라북도 지역은 남장로교회로, 남장로교회가 사역하던 충청남도 지역은 북감리교회로 넘겨주었다.

그러나 교인들을 바꾸는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아직 한국 교인들은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상태였고, 또 지역 분할이니, 교인 교환이니 하는 것을 생소한 사안을 이해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지난 주까지 장로교회에 나가던 교인더러, 다음 주부터는 감리교회로 가야한다고 말하면 교인이 그것을 순수히 받아 드리기 쉬운 일이겠는가?

그러나 이 일은 한국 교인들의 적극적 호응 속에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약 1만 2천 명 교인이 아무 문제 없이 교환됐다. 한 선교사는 이것을 보고 "양쪽에서 아름다운 일치의 정신을 보여 주었는데, 그것은 희열이 가득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다."라며 감탄했다.

이 일에 대해 감리교의 해리스(M.C.Harris) 감독은 다음과 같이 그의 놀라움을 피력했다.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7선교회는 철저하게 그리고 가장 우호에 넘치게 서로 이해하면서 일하고 있다. 지난 가을

지게 됐다. 협의회는 1940년까지 지속됐고, 실제적 협력으로 출판위원회를 통한 찬송가 통일, 정부관계, 여학교, 사회봉사 사업, 기독교 절제운동을 전개했다. 또한 「한국 선교지」(Korea Missions Book)와 「코리아 미션 필드」(The Korea Mission Field) 등을 발간했다.

또 다른 연합사업은 선교서회(聖敎書會) 설립이다. 선교사들은 선교 초기에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문제 가운데 하나가 문서 선교를 위해 선교서회를 설립하는 일이라 여겼다. 1888년 언더우드는 조선선교서회(The Korean Religious Book and Track Society) 설립을 제안했다. 이듬해 10월 창설 준비 모임을 가졌고 1890년 6월에 헌장을 채택하고 정식으로 조직을 갖추었다.

그는 재정 지원을 위해 토론도문서전도회, 미국문서선교회 그리고 런던문서선교회에 지원을 호소했다. 이 기관들이 자금 지원에 동의하여 1889년에는 비록 그 기관들로부터 정기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긴 하지만, '조선선교서회'가 자체 관할권을 가지고 조직될 수 있었다. 이 일은 제7일 안식일 교회만 제외하고 한국에 나와 사역하고 있는 모든 선교회가 동참했다.

서회 회장에 올링거(F.Ohlinger), 부회장 할버트(H.B.Hulbert), 연락간사 언더우드(H.G.Underwood), 기록간사 스크랜톤(W.B.Scranton), 회계에 펜윅(M.Fenwick) 등이 선출됐다. 서회 자금은 주로 한국 교회와 선교사들이 충당했다. 몇 년 동안은 자체 건물도 없었고 간사에게 보수도 지불하지 못했지만, 조선선교서회는 교회의 성장과 더불어 날로 번창해 나갔다.

이 서회는 한국에서 선교하는 모든 선교회가 쓰는 문서를 관장했다. 또한 일어, 중국어, 영어로 된 책을 수입하는 일도 맡았다. 서회는 연합찬송가를 출판하고, 연합교회신문, 주일학교 공과 등을 한국어로 출판했다. 영어로는 「코리아 미션 필드」를 월간으로 출판했다. 따라서 이 선교서회는 모든 선교회들이 참여하여 협력함으로써 선교 사역을 창설하자 이름을 '제너럴 카운슬'(General Council)에서 '페더럴 카운슬'(Federal Council)로 바꾸었고, 단일교회 형성이라는 목적도 빠

100% 천연성분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PRO-Z GOLD



Special Price

✓ 미국 독점 출시 기념 파격 세일



송해선생님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프로지골드

1병 \$89 + tax 3병 \$249 + tax 6병 \$474 + tax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당뇨병의 원인?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할 때를 말합니다. 음식을 섭취 후 혈액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췌장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필수입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있는가?

당뇨병은 조절은 할 수 있으나 완치는 불가능하며 단지 당뇨병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당뇨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 및 진전을 예방하는 것이 일반이론입니다. 현재 당뇨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는 당뇨약들은 천연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심장부종, 신장부종, 간독성)과 방광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유수의 대학의 연구팀들의 연구결과로 드러났습니다.

송문기 박사팀은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당뇨병 회복의 새로운 메카니즘 '프로지'

'프로지'는 혈당강화제와는 달리 당뇨의 근본원인(인슐린 저항성 및 췌장 베타세포 파괴에 의한 인슐린 분비기능저하)을 해결하는 메카니즘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필수미네랄입니다.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에 여러 가지 요인(비만, 과음, 운동부족, 스트레스)에 의해 인슐린 반응도가 낮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DE(Insulin 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인데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아연이며, 아연은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저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 합성물질(CHP Plus Zinc) 프로지는 우리 몸속에서 근육과 지방세포로 아연을 운반하여 아연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아연이 당대사와 밀접하다면, 왜 아연으로 만든 당뇨약은 없나요?

아연은 특성상 섭취 시 인체 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고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음식에도 굴이나 소고기 등에 아연이 존재하지만, 섭취 후 3~4시간이면 소변으로 배출되고 몸에 흡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연이 췌장 세포 기능 복원이나, 근육세포의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당 세포내 아연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여야 성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계는 지금까지 아연 흡수율 제고 물질이나 방법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송문기 박사의 신합성물질 '프로지'는 동물의 전립선에서 추출한 물질(CHP)을 아연을 킬레이트시킴으로써 아연이 일정시간 인체에 머물며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당의 대사를 도와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송문기 박사와 연구팀은 한국인 최초로 미 정부 지원으로 이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취득하고 당뇨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송문기 박사

UCLA 의과대학 연구 교수
미, 재향 군인 병원, 수석 연구원
세계 3대 인명사전 Marquis Who's who에 등재
40년간 당뇨연구에 매진한 대한민국 대표 과학자

프로지를 개발한 송문기 박사는 인류 복지 건강에 위해가 되는 당뇨, 비만, 알츠하이머(치매)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40여 년간을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그는 하와이대학, UCLA 대학교수 미 재향군인병원(US VA Hospital)에서 근무했으며, 가장 시급한 당뇨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미국 연방식품의약품(FDA)로부터 신약 임상시험을 진행중입니다. 그 전에 FDA의 독성 TEST, 국제규격에 부합되는 임상 TEST를 거쳐 FDA로부터 신약판매 전에 건강기능식품(PRO-Z)으로 허가를 받아 당뇨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당뇨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당뇨원인 기능개선제' 프로지를 출시했습니다. 송문기 박사는 체내 아연 대사와 관련한 각종 연구성과를 통해 세계 3대 100인 인명사전 중 가장 권위 있는 Marquis Who's Who에 등재된 인물입니다. 현재 세계적인 과학지인 NATURE 등 세계 유수 연구 관련 기관의 심사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판매점

세크라멘토	916.363.2378	Smile Home Shopping
하와이	808.947.8086	Herb Land
달라스	972.620.2900	Royal Health Department
시애틀	206.229.5466	Health Village



PRO-Z

한국 50만명 판매 SALE 1병 \$69 + tax 3병 \$179 + tax 6병 \$342 + tax

타주 대리점 및 프로지셀러모집중

213.434.1170

www.prozusa.com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신천지 거리시위 모습. ©한국 CBS 제공

“한기총, 신천지는 사교(邪敎) 집단 천명”

한교연도 성명서 발표... 신천지의 일탈행동 규탄

[1면으로부터 계속] 한기총은 "신천지는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교(邪敎) 집단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CBS에서 방영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통해서 증명되었으며, 신천지에서 '한기총 해체, CBS 폐쇄' 서명 운동을 벌이는 등 조직적으로 행동하는 이유도 CBS 방송 이후 내부 동요를 막기 위함이라는 주장이 있다"고 했다.

한기총은 "한국교회와 함께 사회를 병들게 하는 이단 사이비 집단을 퇴출시키기 위해 공동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며, 거짓으로 사람들을 선동하며 교묘한 말로 한국교회 성도들을 미혹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더 이상 이러

한 피해들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천명했다.

한기총은 그러면서 △CBS에서 방송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전국 55,000교회에 배포하며, 한국교회와 연합하여 신천지에 대한 실상을 낱알이 밝혀 한국교회 성도들이 절대 미혹되지 않도록 교육할 것 △한기총 해체, CBS 폐쇄라는 구호로 신천지가 서명을 받기 위해 거짓과 왜곡으로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에 대해 법적 대응할 것 △신천지 유관기관에 대해 불매운동을 전개하고, 신천지 관련 행사를 파악하여 정부 관계 부처 등에 알리며 후원이나 참여를 막고, 그들의 확장성을 강력히 저지해 나갈 것 등의 계획을 밝혔다.

한편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조일래 목사, 이하 한교연)도 신천지는 스스로 과오를 뉘우치고 회개하라며 '신천지 집단의 일탈행동을 규탄한다'는 논평을 2일 발표했다.

한교연은 이 논평에서 "신천지가 이단사이비가 아니라면 연합기관을 해체하라는 구호로 서울 중심가에서 대규모 궤기대회와 가두행진을 벌일 하등의 이유가 없다. 자기들이 그릇되지 않다면 언론이 합법적인 취재를 통해 보도한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언론사 폐쇄 운운하며 겁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과오를 뉘우치고 회개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김진영·이대웅 기자

“가정의달, 부모·자녀의 마음은?”

아이들에겐 희망의 나라...부모에겐 헬조선



이제훈 회장 ©초록우산제공

글로벌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3일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부모·자녀의 시선'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초등학교 4~6학년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각 그룹 300명에게 '어린이들이 00하기 좋은 대한민국', '대한민국 하면 떠오르는 단어' 등의 주제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아동들은 대한민국이 '어린이에게 좋은 나라'라고 답했다. '어린이들이 살기 좋은 나라' 항목에 초등학교 그룹은 89.4점(100점 기준)을 준 반면, 학부모 그룹은 50.2점의 점수를 줬다. 이 외 어린이가 '공부하기 좋은 나라', '놀이 좋은 나라', '존중 받는 나라'의 평가 항목에서도 부모 세대는 자녀 그룹에 비해 절반이 채 안 되는 점수를 매겼다.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이는 항목에도 세대 간 차이가 있었다. 자녀 세대의 답변에서 '어린이들이 존중 받는 나라' 항목이 가장 낮은 점수(76.3/100점 기준)를 차지했지만, 부모 세대는 '어린이들이 놀기 좋은 나라' 항목에 최저 점수(41.8/100점 기준)를 줬다. 어린이들이 '놀 권리'도 중요하지만, 동등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길 바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항목이다.

또 '대한민국 하면 떠오르는 단어' 항목에서도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다. 49.1%의 어린이들이 '태극기'를 가장 먼저 떠올렸지만, 어른들은 '경기체'를 가장 많이 답했다. 이 외에도 어린이들은 '무궁화', '김치', '독도', '애국가' 등 한국을 홍보하는 키워드를 많이 답했지만, 부모들은 '20대 총선', '지나친 교육열', '헬조선' 등 부정적인 단어로 대한민국을 평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이제훈 회장은 "아직 어린이들은 대한민국을 희망적으로 바라보지만, 요즘 학부모들은 자식 하나 키우기 힘든 상황에 비관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며 "이는 저출산, 아동학대의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는다. 아이들의 동심 어린 생각이 사라지기 전에, 어른들이 나서 아이들에게 희망적인 대한민국을 물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올해를 기점으로 매년 '부모, 자녀가 바라보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 발표할 계획이다.

이대웅 기자

“동성애에 대한 죄성 구분해야”

이찬수 목사 어린이 주일 설교 통해...작심하고 동성애 비판



이찬수 목사 분당우리교회 담임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가 "동성애자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긍휼히 여겨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옳고 그름, 죄와 그렇지 않은 것은 구분하자"며 동성애를 작심하고 비판했다.

이 목사는 '어린이 주일'이었던 지난 1일, 주일예배 설교 중 상당 부분을 동성애 관련 내용에 할애하며 그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는 우선 "인터넷에 뜬 에이즈 관련 기사를 보고 혼미한 상태"라며 "동성애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늘고 있고, 에이즈 감염자들 중 10~20대의 비중이 크다는 내용이었다"고 했다.

그는 "해당 기사는 '에이즈 감염자의 92%가 남자인데, 이는 에이즈가 남자와 남자 사이의 성관계로 인한 결과로 추정할 수 있다'는 한 전문가의 인터뷰를 인용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목사는 지난해 서울광장에서 열렸던 소위 '퀴어축제'를 언급하며 "당시 현장 사진을 보면서 마음에 충격을 받았다. 거의 반나체인 사람들이 활보하는 것이었고, 그들이 든 피켓에는 '항문섹스는 인권'이라는 낯 뜨거운 글이 적혀 있었다. 과거 해외 토크으로 보던 일들이 서울에서 일어났다는 게 믿겨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 목사는 "죄는 '확장성'과 '지속적 접촉성'이라는 두 가지 속성이 있다"며 "죄성을 가진 인간은 하나가 충족되면 둘을, 둘이 충족되면 셋을 원한다. 기독교 국가인 미국의 대법원이 처음부터 동성결혼을

허용했겠는가. 이런 죄의 확장성은 동성결혼으로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상상을 초월하는 타락으로 확장되는 게 두렵다"고 했다.

또 '다중혼'에 대한 한 언론의 글을 인용한 이 목사는 "미국에서 가령 남자 셋 여자 둘 이렇게 한 가정을 이루는 다중혼의 합법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한다"며 "캐나다에선 소아성에 합법화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는데, 동성애처럼 어린 아이에게 성적 충동을 느끼는 것도 성적 지향의 일부라는 견해도 있다. 이제 유럽에선 성적 문제가 사람과 사람을 넘어서고 있다. 타락이 어디까지 확장할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했다.

이 목사는 "이렇게 죄악은 우리 자녀들을 잡아먹으려고 집요하게 확장성을 가지고 접촉해 오는데, 교회와 가정은 무기력하기 짝이 없다"고 개탄했다.

김진영 기자

“제자훈련, 내부활동과 지식적 훈련에 치우쳐”

한국교회탐구센터...목회자·평신도 대상 설문 결과 발표

목회자들이 평신도에 비해 제자훈련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자훈련의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교회나 선교단체 내부활동' 혹은 '지식적인 훈련'에 치우쳐 있다는 점을 꼽은 이들이 많았다.

정재영 교수(실천신대 종교사회학)는 3일 한국기독교교회관 2층 조예홀에서 '한국교회와 제자훈련'을 주제로 열린 한국교회탐구센터(소장 송인규) 제6차 교회탐구포럼에서 "한국교회 제자훈련에 대한 의식조사"를 발표했다.

조사는 (주)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1월 5~20일 진행했다. 제자훈련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평신도의 경우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가 26.5%, "조금 도움이 되었다"가 64.4%,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가 8.7%,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가 0.4%였다. 목회자의 경우 69.8%가 "매우" 27.0%가 "조금" 도움이 됐다고

3.2%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제자훈련의 부정적 측면에 대해 '교회나 선교단체 내부활동에 치우쳐 있다'는 평신도는 76.3% 목회자는 64.6%, '지식적인 훈련에 치우쳐 있다'는 평신도는 70.0% 목회자는 75.4%, '영적인 엘리트 의식을 키운다'는 66.1% 목회자는 63.9%, '리더에게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평신도는 61.1% 목회자는 61.6%, '목회자의 권위를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평신도는 60.7% 목회자는 38.4%, '목회자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평신도는 24.3% 목회자는 29.5%였다. "양적 성장에 치우쳐 있다"는 답은 목회자만 51.5%였다.

제자훈련 비경험자의 경우 부정적 인식보다는 주로 필요성과 시간 부족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종교와 기독교 및 사회 이슈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김진영 기자

2016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BERKELEY, CA

L.A Campus 목회학 박사과정 (매년 1, 6월 통역제공, GTU 및 ATS 정회원)

Dr. Hyo Shick Pai: drhyopai@gmail.com
ABSW President: Dr. Paul Martin www.absw.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TRACS, ATS 정회원
- 기독교대학(BA) 목회학석사(M.Div), 신약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인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지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김시은 목사 712131407-4699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유종길 박사, 이사장: 김광열 목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 admissions@aeu.edu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인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준
 특선: Sevis I-20 발행/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솔로몬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들 프라이어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국민건강 위협하는 음란물”

음란물의 강력한 보호자였던 주류언론매체들…그 심각성 깨닫기 시작해



에릭 메탁사스
©크리스천포스트

은 뜻하다.

수십 년간 언론매체들은 음란물의 강력한 보호자를 자처해 왔다. 언론의 자유라니, 선택의 자유라니, 성적 해방이라니 등등을 거론하며 그랬다.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의 주요 언론매체들이 그들의 오랜 잠으로부터 깨어난 듯 보인다. 그들은 이제야 음란물의 실체를 인식하게 된 것이다. “음란물은 국민건강에 대한 전례없는 위협”이라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타임>지는 최근에 인터넷 성애물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반발을 표지기사로 다루었다.

벨런타 러스콤 기사는 한때 음란물 중독자였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친구들로부터 하여금 온라인 관음증의 마수를 깨트릴 길을 찾도록 도와주는 운동을 벌이는 것에 관해서 상세히 기술했다. <국민 재부팅하기>의 설립자인 게이브 딘(28)은 “포르노에 중독되어 있다고 느끼고 있는 [동료] 젊은이들에게 조언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러스콤은 사람들이 외설물을 맹세코 끊으려고 하는 이유가 간단하다고 말한다: 사춘기로부터 포르노를 마구잡이로 즐겨왔던 20대의 비종교적인 젊은이들이 포르노가 그들의 성생활의 토대를 바꾸어서 실제 인간관계를 망치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음란물에 대한 이 새로운 십자군들은 그들이 사춘기였을 때 그들의 뇌가 포르노에 사실상 절어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성적 반응이 방해를 받게 되었다고 확신하고 있다. … 그들은 성적 반응과 관련하여 십여 년간 통제되지 않은 실험을 받은 지도 모르는 실험취 신세였다고 느끼고 있다.”

이 실험에는 무수한 실험자들이 관련되어 있다. 한 온라인소통량조사 회사에 따르면 미국에서만 2월 한달 동안 외설적인 웹사이트 방문회수가 1억 7백만에 이른다.

<허핑턴포스트>지는 2013년에 성인물

등급 사이트의 월별 소통량이 넷플릭스, 아마존, 트위터의 소통량을 합친 것보다 많다고 보도했다.

가장 인기 있는 “성인용” 사이트의 경우 작년 방문자가 거의 44억 시간, 즉 50만년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 성인용 비디오를 시청한 것으로 보도됐다.

다른 뉴스매체들도 또한 이 문제에 관해 계몽해 나가고 있다. 사회학 교수인 게일 다인스는 지난 주 <워싱턴포스트>지에 기고한 글에서 음란물이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지에 관한 과학적 의문은 해결됐다고 주장했다: “담배회사가 흡연과 폐암 사이의 관련성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수십 년간 주장해왔듯이, 포르노 산업도 간살스러운 홍보기계들의 도움으로 그 제품들의 영향에 대한 경험적 조사가 실재한다는 사실조차 부인해왔다.”

그러나 다인스 교수는 음란물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강간, 성폭력, 성추행 등에 더 포용적인 태도를 보이며, 음란물을 시청한 아동들이 더 일찍 훨씬 더 위험한 상태로 성행위에 연루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무수한 전문적 연구들을 인용한다.

<뉴욕타임즈>지까지도 이 대열에 합류하면서, 포르노를 보며 사실상의 성교육을 받고 있는 10대들의 숫자가 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인정했다.

페기 오렌스타인 기사는 오늘날 여성들이 자신들을 사랑받을 ‘사람’으로보다는 이용할 ‘대상’으로 간주하도록 조건지어져 온 남성들에 대처해야만 한다는 현실을 개탄한다. 모순되게도, 성적인 이미지가 도처에 널리 퍼져 오하러 성 자체에 대해 냉담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기독교인들에게는 주류언론 매체들이 이러한 현실을 인정한다는 사실이 매우 고무적이다.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저 출발점에 불과하다. 우리는 음란물의 감옥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보다 더 나은 것을 알려줄 수 있어야만 한다.

우리의 성애는 스크린에 상영되도록 계획된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지적했듯이, 우리의 몸은 성적 탐닉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것이다.

<타임>지도 언젠가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까? 아마 그렇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런 꿈을 꿀 수는 있다.

만일 누군가가 음란물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을 안다면 분명 도움이 될 만한 자료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할 것이다.

[출처: 크리스천포스트] 이인기 기자

“미국이 왜 이렇게 엉망인가?”

하나님의 경고 무시하면...하나님의 진노 피하기 어려워



앤 그래함 롯츠 목사
©HARPER COLLINS/ZONDERVAN

으로 숨어 계신다”고 경고했다.

앤 그래함 롯츠 목사는 13일 본인의 웹사이트를 통해 “미국이 왜 이렇게 엉망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심판은 반드시 핵폭탄이나 IS의 공격, 경제적 붕괴의 형태는 아니다. 하나님이 미국을 향한 약속을 철회하고 우리에게 등을 돌리는 것이 심판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래함 롯츠 목사는 “구약에서 불순종하고 악행을 행하며, 부도덕하고 우상숭배를 행했던 남유다가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켜 심판을 받아 멸망했다”면서 “하나님은 미국에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원치 않으신다. 그러나 만약 이 나라가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

하나님의 진노가 내릴 것이며, 이후에는 아무 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 남유다도 심판하셨는데, 왜 우리는, 미국이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우리는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보호, 사랑을 거두어 가신다면, 정치, 경제, 군사, 기술적인 면이 결코 해결책이 되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함 롯츠 목사는 “진정한 해결 방법은,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감으로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돌보시기를 간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함 롯츠 목사는 “교회에서 들은 기도와 회개 기도는 형식적이고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에 가까웠다”고 지적했다.

그래함 롯츠 목사는 “오직 하나님만이 마음을 찢으며, 애통해하며 하나님을 구하는 이들이 누구인지 아신다”면서 “나는 자문해 본다. 내가 정말 이 나라를 위해 얼마나 진지하게 하나님을 구하며 간청하고 있는가? 언제 마지막으로 이 나라의 죄가 나의 죄인 것처럼 죄를 고백하고 슬피 울며 금식했는가? 나는 미국의 미래가 바로 이 물음에 달려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출처: 크리스천포스트]



<p>LA 지역</p> <p>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젊은이 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주일-비점중학교 / 토요일-17와비몬트코너 주중새벽-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p> <p>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배우고 이단사설을 깨닫고, 이단가정을 치료하며, 선교영역을 순증하는 교회</p> <p>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중연락처 T. (213)386-2233</p> <p>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p>	<p>주일예배 오전 11:2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주일학교 오전 11:20 토요일예배 오전 6:00 학생 청년부 예배 오전 11:20</p> <p>LA 온하늘교회</p> <p>1540 S. St Andrews Pl., Los Angeles, CA 90019 T.(818)983-9024</p> <p>연재선 담임목사</p>
<p>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수요기도회 오후 7:30</p> <p>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헌, 사랑의 공동체</p> <p>1025 S Catalina St, Los Angeles, CA 90006 T.(213) 909-6473 / www.missionla.org</p> <p>장태원 담임목사</p>	<p>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 예배 오전 11:00 토요일연합예배 오전 6:20</p> <p>갈릴리선교교회 함께웃고 함께주는 공동체</p> <p>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ch.com</p> <p>한천영 담임목사</p>
<p>주일 오후 4시 새벽 오전 5:30 (월-토) 저녁 오후 7:30 (화, 목, 금)</p> <p>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p> <p>978 S. Hoover St. #203, LA, CA 90006 T. (213) 272-6031</p> <p>엘리아 김 담임목사</p>	<p>1부예배 오전 7:40 EM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일예배 오후 7:30</p> <p>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p> <p>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p> <p>진유철 담임목사</p>
<p>주일예배 1부 오전 8: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p> <p>나성동산교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p> <p>2525 W. James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213) 487-3920</p> <p>한기형 담임목사</p>	<p>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유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토 오전 6:30 EM 예배 오후 1:00 토요일부방 투 오전 9:30-12:30 한여정년부 오후 1:30 아미아기도모임 수요일 10:30</p> <p>나성서부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사가는 교회</p> <p>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T. (323)939-7323 / www.kwpcpla.org</p> <p>서건우 담임목사</p>
<p>1부예배 오전 7:30 성인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30 한여정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00 찬양예배 오후 3: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p> <p>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p> <p>328 W. 6th St., LA, CA 90020 T.(213) 383-2600, (213) 383-2602 / laopendoor.org</p> <p>박현성 담임목사</p>	<p>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유초등부 오전 11:00 6:00(토) 중고등부 EM 오전 11:00</p> <p>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p> <p>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p> <p>김문수 담임목사</p>
<p>1부예배 오전 9:00 유초등부·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 주일 오후 1:30 수요집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화-금) 오전 6:00(토)</p> <p>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샤하는 은혜공동체</p> <p>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213)598-0191</p> <p>정우성 담임목사</p>	<p>주일예배 오전 10:30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10:30 EM예배 주일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청년부 예배 주일 오후 1:30 목요찬양예배(매주) 오후 7:30 교회학교 주일 오전 10:30</p> <p>산타모니카교회 축도록 섬기는 교회</p> <p>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502-9999 / www.smkcus</p> <p>김경렬 담임목사</p>
<p>1부예배 오전 09: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EM예배 오전 10:00</p> <p>써니사이드교회 하루를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p> <p>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p> <p>조인수 담임목사</p>	<p>주일예배 오후 1: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2:00 토요일목회 모임 오전 11:00</p> <p>나눔장로교회 엔키아선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p> <p>3407 W. 6th St. #804, Los Angeles, CA 90020 T. (310) 404-6219</p> <p>김영구 담임목사</p>
<p>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p> <p>열매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p> <p>3960 Wilshire Blvd. #505, Los Angeles, CA 90010 (월서와 월토 옆) T.(213)380-0071</p> <p>김요섭 담임목사</p>	<p>1부예배 오전 8:30 금요일예배 오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30</p> <p>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p> <p>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213)387-1700 C.(213)500-4737 / olympic-church.org</p> <p>정장수 담임목사</p>
<p>무료 사회복지 상담 및 대명 (정부 배넬릿 지원) 음식 보조 프로그램(Food Stamp), 메디칼, 임신부 메디칼</p> <p>요한 선교회</p> <p>gkal44@yahoo.com Tel: (213) 703-6863 522 N. Hobart Blvd., Los Angeles, CA 90004</p> <p>이경애 목사, 이은우 목사</p>	<p>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 (토)</p> <p>임마누엘선교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p> <p>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 www.laimch.com</p> <p>류종길 담임목사</p>
<p>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p> <p>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p> <p>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p> <p>신승훈 담임목사</p>	<p>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p> <p>청운교회 선교에 흠뻑 소진 초창기의 흠뻑 바른교회관의 흠뻑</p> <p>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p> <p>이명수 담임목사</p>
<p>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p> <p>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p> <p>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F.(818) 549-9199 / choonghyun.org</p> <p>민중기 담임목사</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찬양기도회 오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0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p> <p>한마음제자교회 심자기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p> <p>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p> <p>곽부환 담임목사</p>
<p>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p> <p>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애가 삶이 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p> <p>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p> <p>장지현 담임목사</p>	<p>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p> <p>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p>
<p>김범수 치과 General & Cosmetic Dentistry</p> <p>Bryan Kim D.M.D.</p> <p>김범수 치과</p> <p>1011 S. Arlington Ave., Los Angeles, CA 90019 T.(213)389-0937, (213)389-0938 F.(323)735-1937</p>	<p>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읽는 90일 성경일독 대표 주해홍 목사</p> <p>오늘 성경 읽으셨나요?</p> <p>에스라성경통독사역원 Ezra Bible Reading Ministry</p> <p>1661 Raymond Ave. #265, Anaheim, CA 92801 www.ezrabiblereading.com</p>

LA 동부, 팜스프링스 지역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 교회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org

이희철 담임목사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성경공부 오전 9:30 주일학교 - 주일오전 10:30
영어회중예배-주일 오후 1:00

남가주새소망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500 Montebello Blvd., Rosemead, CA 91770
T. (626)872-2405 교회, (503)332-1941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7:45 중교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토)

고송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일말씀예배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토) 오전 6:00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 622-2324, F.(909) 622-1480/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매주 토) 오전 10:00-11:00

이훈준 담임목사

창대교회
하나님께 영광!

173 E.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909) 388-2940

주일예배 오전 9시(지성전) 금요일예배 오후 7:30
오전 11시(본성전) 매일 OT 월-금 오전 6:00
토요일 새벽예배 오전 6:00
본성전: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최승욱 담임목사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T. (760) 636-2675 / pspkmc.com

1부예배 오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2부예배 오전 10:00 오전 6:00(토)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이승준 담임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EM성경공부 오후 7:00(금)
금요일성경공부 오후 7:0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ia@hnsia.org

문/서/선/교에 앞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사우스 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이창민 담임목사

L.A. 연합감리교회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1부예배 오전 8:0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3부예배(영어) 오후 2:00 중, 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중보기도회 오후 9-11시

정상용 담임목사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30 한어찬양부 오후 2:15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김준식 담임목사

남가주살롬교회
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787-1004 shalomch.org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 9:30/2부 11:00
2부예배 오전 9:30 중/고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말씀까지 내 증인이 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50
3부예배(청년부) 오후 1:30 금요일성경대행회 금 오후 7:20
EM예배 오전 11:0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교회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 530-4040/F.(310) 530-8400/cornerstonetv.com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나다, 글렌데일, 벨리, 벤추라, 버뱅크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20
주일성경공부/새교우반 새벽예배 오전 7:00(토)
오후 1:00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church.com

주일 1부 오전 8:00 중교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찬양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젊은이예배 오후 2:0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여호와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어라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818)882-9191 / F.(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1부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8:00(금)
중교등부 오전 11:00 Awana 오후 8:00(금)
유년부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방수민 담임목사

베다니한인교회
문학받은 교회 변화받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주일 2부 오전 9:30 금요일성경예배 오후 7:45
주일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젊은이예배 오후 2:00

윤대혁 담임목사

사랑의빛선교회
주의 은혜가 흐르는 교회, 사랑의빛선교회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유초등부 예배 오후 1:30
주일예배 2부 오후 1:30 새벽예배 기도회 오전 5:30(월-금)
EM/YOUTH 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기도회 오후 7:45

박정환 담임목사

예수인교회
Christian Missional Church

10452 Louise Ave. Granada Hills, CA 91344
T.(434) 229-6597 / cmc-12.com / yesuin2@gmail.com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익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성경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김민식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West Hills Presbyterian Church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블리즐 Valley Chapel LA에베레츠
주일예배 - 오전 8:00 / 9:45 주일(영성예배) 9:30am, 11:30am
금요일성경예배 - 저녁 7:45 주일(영성예배) 7:15pm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새벽예배: 월-금 5:30am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1515 S. Santa Fe Ave., LA, CA 90021
T. (818)393-5887

최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美목회자들 재정난 심각해”

전미복음주의협의회 설문조사… 가장 큰 고민은 ‘연금’

작은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 상당수가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대부분 이런 힘든 사정을 공개하기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미복음주의협의회(National Association of Evangelicals, NAE)는 그레이 마터 리서치(Grey Matter Research)가 작년 7월부터 4,249명의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지난 달 26일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대부분이 부채로 인해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으며, 장기적 재정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수입 여유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NAE의 레이스 앤더슨(Leith Anderson) 회장은 성명을 통해 “대다수의 목회자들이 라디오 방송이나 TV 프로그램에 출연하지 않고 있으며, (그들이 목회하는 교회에는) 든든한 봉사자들 또는 대형교회 수준의 교인들도 없는 형편이다. 대신 작은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봉사하며 학자금 대출이나 낮은 월급, 의료비 등으로 인한 재정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 슬프게도 이들은 가끔 주변에 도움을 청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느낀다”고 했다.

응답한 목회자들 가운데 80%는 교인 수가 200명 이하라고, 55%는 100명 이하라고 응답했다. 50% 이상은 섬기고 있는 교회의 연간 예산이 12만 5천 달러(약 1억 5천만 원) 이하라고, 50%는 연봉이 5만 달러(약 5천 8백만 원) 이하라고 답했다.

30%는 평균 3만 6천 달러(약 4,140만

원)의 학자금 대출금을 갖고 있었으며, 25%는 평균 7,253 달러(약 834만 원)의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었다. 60%는 교회에서 연금이나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29%는 저축한 돈이 없다고 답했다. 39%는 저축한 돈이 1만 달러(약 1,150만 원) 이하라고 말했다.

목회자들의 92%는 재정적으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은퇴 후 연금이라고 답했으며, 84%는 마련해 놓은 비상금이 없다며 불안함을 느꼈다. 60%는 의료비 혹은 보험료 등을, 54%는 자녀들의 대학 등록금을 염려했다.

목회자들은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도움을 받는 것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1/3 가량이 집 밖에서 재정 상황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했다. 37%는 교단에서 받는 어떤 재정적인 지원도 인식하지 않다고 말했다. 31%는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황 때문에 투잡(two job)을 해야만 한다고 답했다.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따라 NAE는 목회자들이 마주한 재정적인 도전들을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수년에 걸쳐 교단이나 교회들에게서 자원을 끌어모으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NAE 프로젝트의 브라이언 클루스는 성명을 통해 “목회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재정적 압박을 발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다. 우리는 목회자들이 훨씬 더 재정적으로 건강한 상태로 나아가, 압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교인들을 잘 이끌 수 있도록 도울 것”고 했다.

강혜진 기자

“가장 많이 저지르는 영적 실수는?”



빌리 그라함 목사 ©빌리그라함전도협회

빌리 그라함(Billy Graham) 목사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영적인 실수”에 대해 언급했다.

그라함 목사는 최근 빌리그라함전도협회(Billy Graham Evangelistic Association, BGEA) 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여러분이 살게 될 영원한 삶에 비교하면, 이 땅에서의 선행은 하나님께 결코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성경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의 기준에 닿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박국 1장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므로 악을 차마 보지 못하시며’라는 말씀에 따라 완벽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스스로의 선행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실수’라고 했다

또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실수는, 스스로 천국에 갈 수 있을 만큼 선하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수많은 이들이 이러한 실수를 매일 반복한다. 잘못을 한다고 해도, 선행을 이보다 더 많이 쌓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거룩하시고 온전하시다. 하나의 죄(단 한 가지)라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를 몰아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독교인들이 영원 속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선행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와의 관계성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의 가까운 관계성만이 우리의 악행에서 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구원을 위해 스스로를 신뢰하거나 선행을 의지하지 마라. 대신 여러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고, 그분을 신뢰하라”고 했다.

“타겟, 남녀공용화장실 지지 역풍 계속돼”

불매운동 청원에 120만 명 이상 서명… 그러나 불매운동이 정답은 아냐

대형 할인점 타겟(Target)이 성소수자들을 위한 ‘남녀 공용 화장실’을 지지한 데 대해,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가 불매운동을 벌이며 반대하고 나섰다

미국가족협회(American Family Association, AFA)는 타겟을 상대로 불매운동 청원을 벌여 4일 기준 120만 명 이상의 서명을 확보했다.

AFA의 팀 와일드 몬 회장은 “타겟의 정책으로 당신의 엄마와 아내 딸, 여자친구가 모두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면서 “특히 관음증 환자와 같은 위험 인물이 약자를 상대로 범죄를 벌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소비자가 AFA와 뜻을 같이하는데도 타겟은 소수자들을 위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달 19일 타겟의 임원진은 생물학적 성 대신 스스로의 성정체성에 따라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타겟은 성명을 통해 “모든 임직원과 고객, 그리고 지역사회가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믿는다”면서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성소수자들의 화장실 선택 권리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타겟에서 모든 이들은 소속감을 느낄 권리가 있으며, 수용받고 존경받고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명이 공직되자 수백 명이 비판적 댓글을 달았고,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타겟은 모든 댓글을 삭제했다. 그러나 페이스북에서는 찬반 의견을 모두 허용하고 있다.

글을 달았고,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타겟은 모든 댓글을 삭제했다. 그러나 페이스북에서는 찬반 의견을 모두 허용하고 있다.

텍사스 주 맨 패트릭 부주지사 역시 “타겟의 결정은 부인과 딸을 위협에 빠뜨리는 행위다. 소아성애자를 비롯한 성범죄자들이 손쉽게 희생양들에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고 비판했다.

많은 보수주의자들이 불매운동에 동참하고 있는데, 장로교평신도위원회(Presbyterian Lay Committee President) 카르멘 파울러 라베르지(Carmen Fowler LaBerge) 회장도 같은 인물은 “불매운동이 답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만약 기독교인들이 정치적으로 문제가 없고 이윤 추구를 동기로 운영되는 모든 진보적 기업들을 상대로 불매운동을 벌인다면, 우리의 선택의 폭은 매우 좁아지고 목소리가 한쪽으로 기울어서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다”면서 “타겟 측에 ‘트랜스젠더들에게 합리적·수용적 태도를 보이면서 여성들과 소녀들의 안전을 보장해 달라’고 요청하면 어떨까? 또한 양쪽의 입장 중심에 있는 사생활과 안전에 대한 공통의 우려를 찾아낼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강혜진 기자



성중립 화장실의 모습.

“美 성(性)전환자 권리보호?”

발단은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화장실 법' ... 기독교 단체들 막기 위해 노력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미국에서 이제 성전환자들의 권리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생물학적으로 남성 혹은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중간에 그 반대의 성(性)으로 자신의 성 정체성을 바꾼 사람들의 권리 역시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발단은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이른바 '화장실 법'이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지난 3월 23일 공공 화장실에 들어갈 때 자신의 출생증명서에 기록된 성(性)을 기준으로 남자 혹은 여자 화장실이나 탈의실을 사용하도록 하는 법이 마련되었다. 태어날 때 남자였던 사람이 성전환을 해서 여자라고 하며 여자 화장실이나 탈의실에 들어갈 경우 여성들과 어린이들에게 입힐 충격과 혼란을 막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 법은 성전환자들을 차별하는 악법이라며 반발이 거세다.

페이팔 등 일부 기업들을 노스캐롤라이나에 진출하겠다는 계획을 철회했고 브루스 스프링스틴 등 유명한 팝가수들은 노스캐롤라이나 공연을 취소했으며 동성애자 및 성전환자 권익 옹호에 앞장서는 뉴욕,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시애틀 시장 등은 시공무원들의 노스캐롤라이나 방문을 금지하며 항의했다.

그동안 동성애자 및 성전환자들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왔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화장실 법'은 잘못된 것으로 폐기되어야 한다고 말했고 연방정부는 노스캐롤라이나에 대한 연방지원금 중단 내지 삭감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6년 미국 대선에서 사실상 민주당 대선주자인 힐러리 클린턴은 물론이고 공화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도 성전환자들은 자신이 편하다고 느끼는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해야 된다고 말했다.

성전환자들의 권리는 그동안 동성애자들의 권리와 함께 미국 사회에서 보호되어 왔으나 소수자들의 권리로 주장되어 왔다.

캘리포니아 주는 2013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성전환자 학생들에게 화장실이나 탈의실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부여 법안을 발효했다.

LA카운티의 웨스트 할리우드시 정부는 공공기관과 상업시설에 있는 화장실을 모두 '성 중립' 화장실로 교체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 여자대학들은 '성전환자 입학'을 허가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 오렌랜드

밀스 칼리지에서는 2014년 미국내 최초로 여성으로 성전환 한 학생의 입학을 허가했으며, 클레어몬트에 위치한 스크립스 칼리지도 성전환자 학생을 올 가을 학기부터 받아들인다.

미네소타 주 소재 한 한 회사는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회사 직원에 대해 회사 내 여성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그 직원을 she, her 대신 he, his 라고 잘못된 성(性)대명사를 사용하며 성 희롱을 했다는 이유로 2011년 소송을 당했다. 이 회사는 패소해 벌금 11만 5천달러를 직원에게 지불하고 성전환 고용정책을 변경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동성결혼까지 합법화한 마당에 성전환자 권리 보호는 당연한 것 아니냐는 냉소적인 비판이 있지만 미국 기독교 단체들은 이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가족협회(America Family Association)은 전국적 대형 마켓 체인인 타겟(Target)이 노스캐롤라이나의 '화장실 법'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성전환자들이 자신이 선택한 성(性)에 따라 마켓 내 화장실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운영 방침을 지난 19일 발표하자 보이콧 운동을 펼치고 있다.

미국가족협회는 이 방침에 따르면 한 남자가 타겟에서 오늘은 느낌이 여자같다며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여성들과 소녀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러 수 있다며 온라인 보이콧 캠페인을 펼쳤고 4일 현재 120만 명이 참여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반면 동성애자 및 성전환자 권익 보호 단체인 인권캠페인(Human Right Campaign)이나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등은 노스캐롤라이나 화장실법을 폐기하기 위해 19만 명의 서명을 받아 노스캐롤라이나 의회에 전달했다. 이 법안을 서명한 팻 맥코리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인권캠페인(Human Right Campaign)은 지금까지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로비 그룹으로 알려진 전국총기협회(NRA)보다 훨씬 강하다며 수천만 달러의 돈을 가진 동성애자 권익 단체들이 엄청난 압박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 예산 5천만 달러 규모의 인권캠페인(HRC)은 공화당의 주요 후원자 중 한 명인 억만장자 폴 싱어 등의 지원을 받아 미국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자료출처: 케이아메리칸포스트]

“웨일스성공회 사제들, 동성 커플 위해 공적 기도”

복음주의권 '교단 입장파 대치' ... 큰 혼란 초래할 것

웨일스성공회 사제들이 교단의 공식 입장과 반대로 게이 및 레즈비언 커플들을 위한 공적 기도를 하자, 복음주의권 지도자들이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웨일스교회 사제들은 게이 및 레즈비언 교인들과 관련해 '모든 신실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 목회서신을 보냈다. 이번 서신은 “교회 내에서 동성 간 결합을 인정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 18개월 동안 진행된 컨설팅 결과물이었다.

이 서신은 “현재 영국의 시민법은 동성 간의 결합을 인정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비록 대다수의 회원들이 변화를 원하고 있지만, 교회법을 개정하기 위해 필요한 2/3는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월 열린 대주교회의의 이후 사제

들은 “우리는 웨일스교회의 규칙을 바꾸기 위한 움직임을 지지할 수 없다고 느꼈으며, 공예배에서 동성 커플을 위한 축도도 허락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이들은 그러나 목회적인 필요에 따라, 서로 깊이 헌신하고 있는 동성 커플들을 위한 기도는 계속하고 있다.

이에 웨일스복음주의교회협회(The Evangelical Fellowship of the Church in Wales)는 “기도로써 하나님 앞에 동성 간 파트너십을 확정하는 것은, 이것이 선한 일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이는 교단이 공식 결의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제들이 이러한 형태의 기도에 관해 알린 것은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는 성경적 순종에 가치를 두고 기독교적 전통을 붙들고 있는 웨일스교회 교인들과 전 세계 성공회 교인들에게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혜진 기자

O.C./앨버틴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바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들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1부 주일 9:00AM 새벽예배 월-금 5:30AM
주일예배 2부 주일 11:00AM 토 6:30AM
주일학교 주일 11:00AM NCT(한국어) 토 9:30AM-10:00PM
대형대학 E-college 주일 2:00PM NCT Kids club 주일 12:40AM-1:40PM
제지훈련(사역훈련) 화-목 7:30PM

김일영 담임목사

NEXT 사랑의교회
NEXT Sa-Rang Church
11 Musick Irvine, CA 92618 Tel (949)829-0010(office)
www.nextsarang.com

주일예배 (1부) 10:00am 수요일기도회 9:00pm 앤드류 김 담임목사
(2부) 1:30pm 금요일전날아침예배 8:00pm
새벽예배 (월-토) 5:00am - (다름날) 7:00am
화요일보기도회 7:00pm 토요일전날예배 7:00pm

UBM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
1531 S.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4-8360, Cell:714-600-7700 www.ubmchurch.com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김영길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장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어대학생,대학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 선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병익 담임목사
2부예배 오후 11:00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00 생가족 예배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생예배 오전 11:00

남가주 벤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5600 Crescent Ave., Buena Park, CA 90620
T.(714) 806-2562 kpcadavid@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1:00 민경엽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나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영 유아부 오전 11:00 EM,대학부 오후 1:30
유 초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6:30

나침반 교회
모이는 교회, 흠여지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Lambert & Puente)
T.(562)691-0691 F.(562)691-0698 / nachimban.org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박재만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 오후 6:00 (금)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새벽 5:30 (월-금)

남가주 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4552 Lincoln Ave.#207, Cypress, CA 90630
T. (714) 952-0191 / www.socalfcg.com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토요일새벽 오전 6:00 분당 허귀암 담임목사
2부 주일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공부 저녁 8:00 분당
3부 주일예배 오후 1:30

놀워한인교회
Norwalk United Methodist Church Korean Ministry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 90650
T.(562)802-4959 C.(714)308-7038 / usa8291@gmail.com

주일예배(KM) 주일 11: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안창훈 담임목사
영아예배(EM) 주일 9: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저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늘푸른선교회
Mission Community Church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9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1:30 EM주일 오전 11:30 김일권 담임목사
금요예배 오후 8시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다감사교회
The Gamsa Community Church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714)988-3321, www.dagamsachurch.org

주일예배 1부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0:30 고현종 담임목사
2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3부 오후 12:20 토 새벽 6:20
4부 오후 2:00(젊은이예배)

디사이플교회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949)502-4923 / www.disciplecc.org

1부예배 오전 8:45 금요 사바드 오후 7:30 이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토)
EM예배 오전 9:30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 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4부 청년대 오후 1:30 김한오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3부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새벽 6:00

베델한인교회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1부예배 오전 9:00 P-lander(Korean) 오전 11:00 이동준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Children(1-9) 오전 11:00
금요일 기도모임 오후 8:00 Youth(7-12) 오전 11:00
토요일 금요일, 예프리스콜 College 오후 1:00

앨버틴 아름다운 교회
17702 Cowan, Irvine, CA 92614
T. (949)250-1111 / www.beautiful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권혁민 담임목사
2부 오전 9:15 중등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한어부 오전 11:30
KMC대학생부 오후 2:00

앨버틴 온누리교회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주일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홍성준 담임목사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중고등부 오전 11:00
대학생부 오후 1:30

앨버틴 한민음교회
믿음으로 하니되는 교회
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949)769-9628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예) 박경호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오전 6:00(토)
4부예 오후 1:30(청년 학회) 청년부 수요성경기도회 오후 7:00
FAME예배 오전 11:30(청년 영예)

앨버틴 침례교회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기 오전 6:30 우대권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 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213)291-5901 / (714)833-2568 daekwon.org

주일예배 오전 9:00 & 10:30 김민재 담임목사
새벽예배 화-토 5:30, 토 6:00
금요예배 오후 7:30

예진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 공동체
4221 Rose Dr., Yorba Linda, CA 92886(Worship Center)
T. (714)788-3677 / www.yechinchurch.com
18639 Yorba Linda Bl., Yorba Linda, CA 92886 (교회 사무실)

주일 1부예배 오전 8:15 유년부, 초등부예배 오전 11:30 영영민 담임목사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영아중고등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한어중고등부예배 오전 10:30
영아주일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주일 오전 6:00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891-2029, 898-1068 F. 714-373-3097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5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한기홍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09:3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삼림은교회, 세계선교를 미루지 않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8:30 수요일기도회 : 오후 8:00 주혁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히스패닉 예배 오후 6:00

주님의빛교회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플러튼 채플 Fullerton Chapel 최혁 담임목사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목요영성집회: 7:45pm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주안예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17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2
T. (657)217-5558

주일 성미 예배 : 오전 9:00am 금요기도회 : 금요일 오후 8:00pm
주일 한국어 예배 : 오전 11:00am 새벽기도회 : 월 금요일 오전 5:30am
주일 영어 예배 : 오전 11:00am 토요일 오전 6:00am
주일 유초등 예배 : 오전 11:00am

토기장이교회
1808 W.Lincoln Ave., Anaheim, CA 92801
T.(714)234-5338 / www.pottersccc.com
E-mail : info@Pottersccc.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조원재 담임목사
수요일예배 오후 8:00

하나님의 은혜교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자"
14706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T. (213) 247-7440 / godsgracechurch.org



제7회 미주연합총회 및 말씀, 성령컨퍼런스

General Assembly of the Miju United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 Bible Conference

주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사60:1-3)



할렐루야!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2016년 제7회 총회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이사야60:1)는 주제로 성총회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총대원 여러분들과 우리교단에 관심있는 분께서는 성령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주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시 2016년 5월23일(월)~5월27일(금)
 23일 오후7시~27일 오전12시까지
장소 캘리포니아 나성수양관
 3270 N. Mountain Springs Rd Pinon Hills CA 92372
문의 213-842-9951 · 213-842-9796 · 571-244-6239

행사일정
 총회 24일(화) 오전10시
 졸업식 25일(수) 오전10시
 목사임직식 26일(목) 오전10시
 성령컨퍼런스 23일(월)~27일(금) 새벽까지

대표고문: 증경총회장



UBU 명예총장 김경서 목사

대회장: 총회장



UBU 총장 권다니엘 목사

부대회장: 부총회장



뉴욕불기독교교회 노인수 목사

준비위원장



UBU 부총장 / 연합교회 심진구 목사

대회총무: 총회 총무



메릴랜드 안디옥교회 현종각 목사

진행위원장: 서기



오레곤 두리하나교회 최규홍 목사

강사

UBU 총장



권다니엘 목사

군포성산교회



김자현 목사

미주성산교회



방동섭 목사

뉴욕불기독교교회



노인수 목사

UBU 부총장/연합교회



심진구 목사

메릴랜드 안디옥교회



현종각 목사

나성소망교회



김재울 목사

섬김과 나눔교회



김 엘리야 목사

주최 미주연합예수교장로회총회 주관 유나이티드신학대학교

문의 213-842-9951 · 213-842-9796 · 571-244-6239

북인도 힌두권 전략적 복음화...북인도선교회 창립

'R7 to 7 사역'과 함께 통합적 선교 모델 한국교회에 제시할 것

복음화율 2% 미만의 미전도종족들이 밀집된 북인도 지역의 전략적 복음화를 위해 북인도선교회(NIM)가 설립됐다.

힌두교 세력이 강한 북인도 지역에 중점을 둔 최초의 선교회로, 현지 상황에 맞는 통합적·전문적인 선교 모델을 한국교회와 선교사들에게 제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북인도선교회는 지난달 30일 서울 면목동 베엘교회(담임 전해동 목사)에서 북인도선교에 동참하고 있거나 관심 있는 목회자, 교수, 비즈니스인으로 구성된 이사진과 후원자들을 초청해 설립 감사예배 및 총회를 드렸다.

이날 설립총회에서 이사장으로 취임한 베엘교회를 시무하고 있는 전해동 목사는 "오랫동안 개척의 어려움에도 '지역을 섬기고 세계를 품자'는 슬로건을 갖고 있었다"며 "때가 되어 4층 건물을 구해 지역아동센터를 세우고 북인도선교회도 조직하면서 지역을 섬기고 세

계를 품는 교회 기반을 마련했다"고 고백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북인도선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해 나가려면, 모든 이사가 자신의 은사와 역량을 총집결하여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베엘교회는 북인도선교회 설립을 주도한 이윤식 인도선교사를 오랫동안 기도와 재정으로 도운 교회 중 한 곳으로, 전해동 목사가 설립준비위원장을 맡아 함께 섬겼다.

인도 교회개척운동훈련학교(ICPMTI) 디렉터이자 인도복음주의협의회(IEF) 훈련 디렉터로 섬기고 있는 이윤식 선교사는 "북인도 복음화를 위해서 전략적인 접근을 하면서, 무엇보다 교회 간 연합과 협력 정신이 필요하다고 느꼈다"며 "통합적인 선교회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어 북인도선교회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올해 2016년은 이윤식 선교사와 사모 이준경 선교사가 인도선교를 시작한지 25주년이 되는 해이며,



지난달 30일 베엘교회에서 북인도선교회 설립 감사예배 및 총회가 열렸다. ©북인도선교회

2007년부터 북인도 지역에서 교회 개척운동과 미전도종족 사역 활성화를 위한 'R7 to 7 사역'을 시작한 지 10년째 되는 해이기도 하다.

이 선교사는 북인도선교회 설립을 위해 40일 특별기도를 하고 선교회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파송교회에서 사임할 수밖에 없었지만, 두 달도 채 되지 않는 기간 20명의 이사와 70명의 회원을 모았다.

이윤식 선교사는 "특별한 하나님

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한국교회가 침체되고 선교의 동력이 빠지고 있는 때, 아무쪼록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특별히 북인도에서 힌두권 복음화를 위해 북인도선교회를 사용하시고 새로운 일들이 이뤄지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R7 to 7 사역'이란 'R'은 '지역'(Region)과 '계시

록'(Revelation)을 의미한다, '7'은 사도행전에 소아시아를 포함해 바울이 사역한 지역 7곳과 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지역 7개 교회를 의미한다.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을 따라 북인도를 7개 권역을 나눠 각각에 전초기지를 세우고, 이를 기반으로 더 깊은 지역으로 들어가 7개의 또 다른 기지(교회)를 세우는 전략이다.

이지희 기자

내전과 IS 때문에 옷가지도 없이 피난 온 시리아 난민들 위해

레팜선교회 ... 터키에서 무료 바자회 개최

레팜선교회에서는 터키 이스탄불의 변두리인 S시에 난민타운을 형성하여 살고 있는 시리아 난민들을 위하여, 지난달 12일 무료 바자회를 열었다. 바자회 물품은 터키 교민들에게서 중고 옷이나 가방·신발·담요 등을, 한국의 개인과 교회들, 미국 한인교회들에게서 재정을 후원받아서 준비했다.

평안과 행복을 주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기고 떠나던 타국 터키에서 새로운 삶을 개척해야 하는 시리아 난민들에게는, 강제로 주어진 삶의 무게가 견디기 힘들 정도로 무거운 것이다.

시리아 내전과 IS의 공격에 황급히 피난을 온 터라 포크 하나, 옷가지 하나, 담요 하나가 그들에게는 꼭 필요한 물품들이다. 모국과 고향, 가족 등을 강제로 빼앗기고,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그들에게, 다른 사람들의 관심과 애정 어린 말 한 마디, 작은 후원이 모진 세월을 버틸 수 있는 한 줄기 빛과 같은 큰 희망이 될 수 있음을 알기에, 그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전사해 주기 위해 이 바자회가 준비됐다.

바자회 아이템으로 중고 물품은 터키 교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상태가 양호하지만 사용하지 않는 옷이나 가방, 신발, 아이들 학용품 등을 후원받아서 준비하고, 식료품 및 유아·여성용품은 한국에 있는 개인들이나 교회들, 세계 각지 한인교회들에게서 재정을 후원받아서 구입했다.

원래는 이스탄불주의 S시(Belediye)와 공조하여 바자회를 진행하려고 계획했으나, 시 사회복지부서의 업무가 과중하여 힘들어졌다. 중고 물품들을 담은 크고 작은 박스만 18개가 넘었고, 식료품까지 더하면 도저히 일반 차량으로 옮기는 것이 불가능했다. 그래서 나름 시에서 트럭을 지원해 주어서 모든 물품들을 날라 주길 기대했지만,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 그래서 일반 차량 중 뒷부분을 화물칸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렌트하여 사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시리아 난민 사역을 하면

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교제하고 있는 오마르(가명)라는 친구가 있다. 나이는 38살이고 시리아 알레포(Alepo)에서 의류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수니파에 속하는 무슬림이라서 3년 전에 IS의 공격과 정부군의 폭격을 피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터키 이스탄불주의 S시에 들어와서 살고 있다. 5명의 자녀와 아내, 그리고 오마르, 이렇게 7명이 같이 살고 있다. 오마르의 도움으로 바자회 준비와 모든 진행을 아무런 문제 없이 순조롭게 할 수 있었다.

이 바자회는 원래 시리아 난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전단지를 붙여서 가능한 많은 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S시에만 2만 명의 난민들이 살고 있어서 자칫하면 수천 명의 난민들이 몰려드는 위험한 상황까지도 처할 수 있다고 해서, 시에서 터키어를 아랍어로 통역할 수 있는 통역사만 지원받아, 오마르와 그의 친구들을 중심으로 80명 정도의 난민들을 초청하여 진행했다.

바자회 당일날, 내심 '초청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오면 어쩌나' 걱정을 했었는데, 우리가 예상한 대로 어른과 아이들까지 다



무료바자회에서 생필품을 제공받고 있는 시리아 난민들.

해서 80여 명 정도가 모였다.

이번 바자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있었다. 바자회를 통하여 더 많은 시리아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 바자회가 시리아인들과 우리를 잇고,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있는 생명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었다. 기도한 대로 더 많은 시리아인들을 만났고, 그들 집에 초대되어 차를 마시며 교제를 했었다.

예수님은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

금'이라고 말씀하신다. 세상에 스며들어 가서 소극적으로는 세상의 타락과 부패를 방지하고, 적극적으로는 사랑과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말씀이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을까? 예수님 말씀대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내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해야 한다.'

[레팜선교회 원혜연 선교사]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 봄학기 학생모집

봄학기 2016년 3월 21일(월)~5월 28일(토) 수업 (봄학기 등록마감 3월 21일까지)

본 기독교 복음선교 연합총회에서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와 주 교육국의 승인을 받아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를 진리와 경건이란 학훈을 가지고 설립하고 다음과 같이 2016년 봄학기 학생을 모집합니다.

<p>모집 부문</p>	<p>신학 대학교 신학과(BA) - 4년 / 126학점</p> <p>신학 대학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M.Div. 교역학 석사 과정 - 3년 / 96학점 2) M.A. 석사과정 - 2년 / 48학점 3) Th.M. 신학 석사 과정 - 2년 / 48학점 4) D.Min. 목회학 박사과정 - 3년 / 48학점 5) Th.D. 신학박사 과정 - 3년 / 56학점
	<p>일반 대학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교사 과정 - 2년 / 56학점 2) 평신도 지도자과정 - 1년 / 36학점 3) 평신도 성경학교 - 6개월 / 12학점 4) 채플린 과정 - 소정 과목 5) ESL 과정 - 1년 6) 유치원 교사 및 원장 과정 - 1년
	<p>홈스쿨링</p> <p>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정과 교육의 문제의 대안으로 크리스찬 홈스쿨링 교육을 전문으로 지원합니다. 크리스찬 홈스쿨링은 크리스찬 부모들과 자녀들이 함께 영성과 인성과 지성이 통합적으로 균형 잡힌 성장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성경적인 교육 방식입니다.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의 홈스쿨링은 무너진 가정과 교육의 회복을 위해 앞의 본질을 앞세우고 제자도를 실현하기 소망하는 가정들의 결단과 헌신을 격려하며 견고하게 만드는데 일조하고자 합니다.</p> <p><small>* 1학년에서 12학년까지 기독교식 홈스쿨링 방식으로 교육학 박사들과 교사들이 전문 지도합니다.</small></p>

* 입학 첫학기 등록 학생들에게는 80% 장학금을 드립니다.
* 기독교 복음 선교 연합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교과 과정 중 50%는 인터넷으로 수업이 가능합니다.
* 본 학교는 분기별(쿼터제)로 학생을 모집합니다.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College & Seminary in America (CTCS)

1508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213)999-6884(대표전화), (213)272-6031, (213)235-6889

온라인 쇼핑 비즈니스
 주부, 여자 유학생 환영
 주 8~10시간 사용하여 엑스트라 수입을 창출
 연락처 T(818)590-6078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Family 자동차 \$중고차 최고가 매입\$

새차 맞춤 리스 중고차 매매 "기본 \$700 더 드립니다."

213.453.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familyauto.us



한국의사랑

한 의사 Zo'e 조애

Tel:(213)718-8275

이제마 사상 체질 맥 30년 전문 체질맥, 장부맥, 병맥, 설진

심혈관 질환, 간질환, 중풍, 소화기문제, 내분비문제, 부인병, 고혈압, 당뇨, 부종, 알러지, 신장병, 각종통증, 갱년기, 생리통, 생리불순 (아들 원하시는 분)

2120 W. 8th St, #208, LA, CA 90057(8th & Lake St.) (일수금 예약 필수)

주님미디어닷컴 전도용품 및 배너 할인행사
오픈 기념
 CD Printing * Papersleeve=\$300
 원형배너 스탠드포함 \$65 (할리슈팅 제외한 전 품목 Free Shipping!!!)
 미디어선교에 앞장서는 탐미디어에서 귀 교회의 성도님들의 사역과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성기기 위해 기독교 전문 온라인 쇼핑몰인 주님미디어닷컴을 새롭게 오픈하였습니다. 보다 편리한 구매와 저렴한 가격, 세련된 디자인으로 귀 교회와 성도님들께서 칭기시는 사역과 사업을 성기도록 하였습니다.
 junimedia@gmail.com
 Call : 323.265.0244
 CD, DVD 제작전문, 각종 인쇄, 현수막, 각종 서신(심내외, 초청, 제작, 반죽물인쇄 전문)
 junimedia.com

전도축제 준비를 위한 전도용품, 새가족 선물용시디발매
맞춤형으로 제작해 드립니다.

1. 전도용품 세팅 **맞춤형으로 제작해 드립니다.**
2. 전도용 실교시디 **소량도 제작가능합니다.**
3. 새가족 및 방문자 선물용 찬양, 실교시디발매
4. 각종 배너 **모든 사이즈 제작 가능합니다!**
5. 원형배너 (스탠드 포함 \$65) **Free Shipping!!!**

전도용품티슈 1,000set(\$180)
 고급양공 솔티슈! 1set에 10매가 들어 있습니다.
전도엽서
 각종행사용품 및 전도용품, 선물용품에 구비되어 있으나 불시에 사용할 경우의사를 더욱 다양한 종류를 찾아주세요! 누락되지 않습니다.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 트랜스미션
- 타이밍벨트
- 브레이크
- 튼업정비

10% 할인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영품 옷수선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Master Tailor 김병호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프로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BOOK BINDING DIGITAL PRINTING

BANNER / BOARD FLYER / BROCHURES BUSINESS CARDS BOOKLETS

책자제본 디지털 인쇄전문

EXCELPRINTING 213.383.7733

2500 W. 8th St. #100, 101 Los Angeles, CA 90057

크리스천들의 비즈니스 무기를 만듭니다

sophiaproduction1.wix.com/2016

소피아 프로덕션

SOPHIA PRODUCTION

인쇄광고, 온라인광고, 그래픽디자인, TV광고기획, 스토리보드, 비디오편집, 초상화, 정밀묘사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제 2의 심장 "발" [카이로메아]

CHIROMEIA

발에 대한 무관심으로 깨어진 신체의 내부 장기 및 근 골격계를 이제는 카이로메아로...

인체공학적인 설계
 척추에 미치는 중력을 3방향으로 분산 : 디스크, 관절염 등 척추질환 예방 지속적으로 용천혈을 자극함으로 기력 증진

카이로메아를 착용하셔야 할 분
 조금만 걸어도 힘이 없거나 발바닥, 뒤꿈치, 무릎 및 허리가 아프다. 발바닥 또는 특정 발가락에 티눈, 굳은살이 생기거나 신경이 압박을 받는다. 성장기 어린이의 기형적 걸음걸이의 균형과 성장 촉진이 필요하다.

사용방법
 남녀 구분없이 표준화 되었습니다
 대(L)9 1/2 이상, 중(M)9-6 1/2, 소(S)6 1/2이하

가루간장

SOY SAUCE POWDER

SOY SAUCE POWDER는 유전인자를 변형하지 않은 콩으로만 만듭니다.

콩이 95% 들어 있어 영양분이 풍부
 No 방부제, No 화학조미료 안심!

국제 건강 가족 동호회 Tel(213)382-9714, 382-2827
 Fax(213)382-2405 244 S. Oxford Ave., No. 2, LA, CA 90004

골든씰

천연항생제 Golden Seal

골든씰은 약초중의 약초로서 (KING OF KINGS)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약초들 중에서 가장 놀라운 약효를 지녔다. 항생제가 필요한 모든 경우에 사용하며 감기몸살, 폐렴, 신종플루, 독감예방, 위장질환, 간염, 간경화, 중이염, 방광염, 습진, 백선 등 각종 염증 피부질환에도 좋음. 특히 마약 중독성에 최고의 해독제로도 알려져 있다.

CHARCOAL

숯가루와 질병 적음

알레르기, 아토피성피부염, 습진에 숯가루 적용 차콜은 인체내의 독성 성분을 제거 가정 상비 식품 필수!

리프팅 라인·지방분해

최신장비도입

- *리프팅 라인 4회 \$999
- *부분지방 분해 5라인 8회 \$999

치아미백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달분 \$60

배 빠는 속편약!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치질(항문하혈, 통증) •우울증
 •독소제거, 혈관 청소 •관절염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원형탈모
 •불임증 (자궁축, 하혈) •만성두통, 요통
 •TMJ 턱관절 장애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213)380-7800

서울메디칼 그룹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 토 10시~2시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체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형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의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병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Metabolism, Vol 47, No 1(January),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 5,997,908

100% 천연성분

방승인 송해선생님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프로지골드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213.434.1170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Special Price

1병 \$89 + tax
 3병 \$249 + tax
 6병 \$474 + tax

가까운 약국이나 건강식품점에서 구입하세요!

•한수희 칼럼(5)공감적 경청2

공감적 경청이 어려운 이유(위험한 듣기)

9살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와 엄마가 스포츠용품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아이가 가게 앞에 진열된 멋진 빨간색 자전거를 봤다.

아이는 걸음을 멈추고 엄마에게 말했다. "와, 나도 저런 자전거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이 엄마는 미친듯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너 정신이 있는거니! 지난해 말 크리스마스 선물로 자전거 사준게 언젠데! 자전거를 또 사달라고! 내가 또 사줄 것 같아?" 엄마는 아이를 바닥에 팽개칠 것만 같았다.

안타깝게도 아이 엄마는 이해하기 위한 듣기와 결정하기 위한 듣기를 구분하지 못했다. 만약 엄마가 아이에게 "저 자전거의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드니?"라고 물었다면, 아이는 "저기 핸들에 달린 반짝이는 줄 보이죠? 진짜 멋져요."라고 대답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반짝이는 줄은 값싼 생일선물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아이의 자전거의 어떤 부분을 마음에 들어 하는지를 들은 다음에는 이렇게 물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엄마가 왜 저 자전거를 사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아이는 바보가

아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수도 있다. "크리스마스 때 새 자전거를 받았잖아요."

듣기의 위험함이 여실히 드러나는 한 사례다. 선하고 지혜로운 귀로 듣지 못하는 것이 위험한 이유는 우리의 듣는 방식과 마음상태에 따라 상대의 말을 해석하기 때문이며, 그 해석에 근거해 반응하게 되기 때문이다. 가장 위험한 듣기에는 방어적 듣기가 있다.

방어적 듣기란 화자의 진의와 무관하게 자신이 공격받았다고 느껴서 다양한 형태의 방어적 자세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상대방의 말을 듣고 나면 그 다음 순간 감정에 이끌려 반응하기 쉬우며, 인간관계나 조직내의 신뢰를 매우 심각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파괴적이다. 방어적 듣기의 유형은 으르렁거리는 사자형, 놀란 사슴형, 심각한 주머니쥐형, 도망치기 바쁜 토끼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각 유형의 사람들을 주위에서 어떻게 느끼는지 살펴보는 것을 통해, 나는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란다.

먼저 으르렁거리는 사자형은 자신이 자제력을 잃고 감정을 조절하

지 못하는 모습을 가끔 본다고 하며, 당신이 화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다른 사람의 말을 잘라 버리거나 비아냥거리는 투로 말하는 편이라고 하며, 당신이 자기 생각이나 자기 영역을 지나치게 방어하려는 편이라고 말한다.

놀란 사슴형은 당신이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염려에 빠지는 것을 자주 본다고 말하며, 당신이 염려에 빠질까봐 되도록 말해주시지 않으려고 조심한다고 말한다. 또한 당신이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대화를 잘해 주어야 한다고 말하며, 근심으로 인해 두통, 위통같은 것을 자주 앓는 것을 보았다고 말한다.

심약한 주머니쥐형은 자신의 주



한수희 강사
기독교 상담 세미나

장을 곳곳이 펼 때가 거의 없고 도와달라는 말도 하지 못하며, 사람들과 절대로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무조건 몹시 조심하는 편이다. 불쾌한 일을 피하기 위해 자기 주장을 너무 많이 포기함으로 당신의 관대함과 이타적인 태도를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을 종종 본다고 한다.

도망치기 바쁜 토끼형은 심각한 문제에 관해서는 무조건 말하고 싶어하지 않으며, 사람들의 만남을 피하기 위해 변명을 한다. 일이 어려워지면 당신이 슬쩍 자리를 피하는 경우가 많으며,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그래서 주위에서 당신을 늘 멀리 있는 사람처럼 느낀다고 한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위태롭다고 느낄 때 본능적으로 방어하게 되어 있다. 이것은 당연한 반응이며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 결정적 방편이다.

문제는 방어가 필요치 않은 상황에서 방어를 함으로 나쁜 아니라 관계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는 데 있다. 내 안의 상처와 채워지지 못한 결핍들이 자기를 보호하기에 급급하게 만들다 보니, 상대의 입장을

헤아리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고 자신의 잘못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눈은 닫게 만든다.

상대가 나를 무시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사자처럼 으르렁거림으로 나의 강함을 피력하고, 보호받는 것을 통해 사랑을 느껴야 하기 때문에 연약함의 혜택을 포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늘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에 당연한 자기 주장도 펼치지 못하며, 나를 드러내는 것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망치기 바쁘다. 그럼에도 대화와 관계가 어려운 이유는 늘 상대에게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고 말한다.

우리는 연약하다. 그 연약함이 부지불식간 악한 동기를 유발하게도 하고, 그것이 결국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울무가 되게도 한다. 연약함은 발견되어야 하고, 고백되어야 하고, 그 연약함으로 인해 파생된 잘못은 말씀의 빛 가운데 조명되어야 하고, 연약함의 한계를 넘어 성장해야 하고, 나의 성장을 통해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우리는 부디.. 나 자신을, 내 가족을, 내 지체를, 내 이웃을 진정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김병태 칼럼

구조전 '다이코(Dayko)'를 생각하며

지난달 16일 에콰도르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했다. 그 후유증은 실로 엄청나다. 초기에 일어난 강진 이후 700여 차례 이상의 여진이 이어졌다. 최소 655명이 숨지고, 1만 2,00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지난 1999년 1,000명 넘는 사망자를 낸 콜롬비아 지진 이후 남미에서 일어난 최악의 재난이라고 한다.

땅이 불을 품고 있다. 자연을 훼손한 인간을 언제 공략해 울지 아무도 모를 일이다. 자연을 창조자의 뜻대로 관리하지 못한 고약한 청지기 대한 하나님의 채찍인지도 모른다.

이제부터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자연을 하나님의 뜻대로, 순리대로 관리하고 섬겨야 한다. 바른 청지기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으면 자연은 계속해서 인간을 가시로 공격하고 불을 내뿜을 것이다.

인간이 대단한 양 으스스하지만, 사실 자연 앞에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 실감나게 한다. 최근 과학의 힘을 믿고 하나님의 창조 영역까지 침범하려는 움직임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자연 앞에서 이렇게 나약한 존재가 아닌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감사할 일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바벨탑을 쌓지는 말아

야 한다. 바벨탑의 결국은 흩어짐밖에 없으니까.

지진의 참상을 극복하기 위해 세계 각지에서 수백 명의 전문 인력이 구조 작업을 돕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58명이 실종 상태이고, 2만 5,000여 명이 집을 잃고 피난 생활을 하고 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은 이번 지진으로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만 26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구조 식량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죄 아래 있는 인간은 이런저런 일들로 늘 근심거리를 갖고 있다. 어려움과 시련 앞에서 있다. 그때 필요한 게 있다. 서로 팔을 걷어붙이고 돕는 것이다.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돕고 구하는 일에는 국경이 필요 없다. 인종을 초월해 협력해야 한다. 그래서 글로벌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경쟁이 아니라 공존을 위한 글로벌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참혹하고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도 미담이 소개되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구조전 다이코에 관한 이야기다. 다이코는 에콰도르 북부에 위치한 이바라소방서 소속 구조탐지견이다. 올해 네 살이 된, 흰색 래브라도 리트리버 종(種)이다. 다이코는 6일 동안 지진으로 폐



김병태 목사
성천교회

허가 된 도시를 빙빙 돌았다. 무너진 건물 잔해더미에 매몰된 실종자들을 수색하기 위해서. 월 사이 없이 동분서주하며 한 명이라도 더 찾아내려 했다. 다이코는 구조 도중 여러 차례 열사병 증세를 보였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다. 한 사람이라도 건져내야 하니까. 다행히 그의 공으로 무너진 건물더미에 매몰된 사람 7명을 구했다.

다이코는 지나치게 무리한 탓에, 자신은 끝내 탈진해서 숨지고 말았다. 사인은 관상동맥 심근경색 및 급성 호흡부전이었다. 자기 목숨도 돌보지 않고 누군가를 살리려 애쓴 구조전 앞에, 만물의 영장인 한 인간으로서 부끄럽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뭘 위해 그렇게 동분서주하고 있는지.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가? 사람들을 죽이려 하는가? 가치

있는 일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그러지 않으면 자신만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가?

다이코의 자랑스러운 죽음 소식을 접한 많은 사람들은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내가 죽음 앞에 설 때는 어떻게? 주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애도하는 죽음을 맞이할까? 아니면 '죽기를 잘했다'고 말하지는 않겠지?

사실 죽음 앞에 섰을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우리가 살아온 삶의 흔적이요 열매이다. 지금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사람들의 평가로 드러난다. 그러나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 다이코처럼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내가 죽어 남을 살린 예수님처럼! 땅에 떨어져 썩은 한 알의 밀알처럼!

사실 사람들의 평가야 뭐 그리 중요하랴. 더구나 죽음의 때에, 그런 데 정말 중요한 게 있다. 육체의 죽음 후에 계속되는 나라가 있다는 사실. 그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 그때 재판장은 상으로, 또는 형벌로 우리를 판단하실 거라는 사실. 단연코 언젠가 죽음에 이르게 될지라도,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무리하는 것은 탈진을 가져온다.

다이코도 그랬다. 지진 발생 열새 뒤 구조 활동을 마치고 쓰러졌다. 그리고 끝내 다시 눈을 뜨지 못했다. 소방관과 수의사들이 여러 차례 소생술을 시도해 봤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세상에는 개만도 못한 삶을 사는 이들도 적지 않다. 존재론적으로야 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다. 그러나 살아가는 행태에 있어서 는 개만도 못한 이들이 적지 않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과 재능을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데 사용하는 자들이 적지 않다.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면서 깨닫지도 못하고 돌이킬 줄도 모르는 사람. 악을 더해갈 뿐, 덕을 끼치고 남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모른 채 사는 사람. 개만도 못한 인간!

그러나 아무리 훈훈한 미담을 남기고 떠난 구조전이지만, 결코 하늘 나라에 갈 수는 없다. 하늘나라는 개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인간에게만 주어진 신의 은총이다. 심정적으로야 이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일 뿐이다.

오늘도 우리는 그 사랑 앞에서 있다. 그 사랑을 누리고 살아간다. 그리고 그 사랑을 드러내라고 요청한다.



▲콧물빼기 시럽으로 환자가 치료 받는 모습

비염, 축농증 지긋지긋한 콧병 치료는 콧물빼기 치료가 해답!



항상 코가 막혀있고
아침이면 콧물을 너무 많이 흘렸습니다

오랜 시간 비염과
코막힘으로 냄새도 못 맡는 환자

체험사례1 9세 여아

콧물빼기를 하니 너무 많은 코가 빠져 나왔다. 환자가 침을 맞으려 하지 않아 발효 한약인 '코편해환'을 복용하면서 1주일에 두번씩 치료를 받았다. 치료 5번이 끝난 후, 환자 부모가 "이젠 저녁에 잠을 잘 때 입을 벌리지 않고 코로 숨을 쉰다"면서 너무 좋아했고, 10번이 끝나자 상태가 너무 좋아졌다.

체험사례2 여대생

어릴 때 부터 잠을 잘 때 입으로 숨을 쉬다 보니 아침이면 입이 말라 많은 고생을 했다. 1주일에 두 번씩 내원, 콧물빼기와 침 치료를 병행했고 6번 치료후엔 자신도 모르게 코로 숨을 쉬면서 자게 됐다. 그래도 완전히 고치겠다고 15번정도 내원해 치료를 받았다. 모든 치료가 끝난 후엔 코로 숨쉬는 것이 너무 좋으면서 머리가 맑아져서 공부에 집중이 잘 된다고 했다.

기/독/일/보와 함께 하는

복새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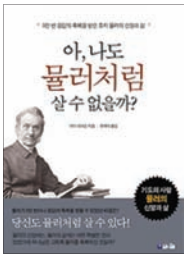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신간 추천

아, 나도 물러처럼 살 수 없을까
아더 피어슨 | 브니엘 | 352쪽

조지 물러도 처음부터 기도의 사람은 아니었다고 한다. 젊은 시절 도둑질에 사기를 입삼았고, 주정뱅이로 허랑방탕한 삶을 보냈다. 그런 그가 스스로를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알리는 표본으로 봉헌하고, 오직 믿음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되었다. 어두운 방향의 터널이던 젊은 시절, 물러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새롭게 태어났는지부터 보여 주는 책이다.



세미한 주님의 음성
박근수 | 파스한이야기 | 270쪽

법무부 종교지도위원이자 이웃 사랑 및 복음 전파를 위한 '사랑의 징검다리' 대표로 재직 중인 저자가 '일상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체험하며 신앙생활하는 이야기를 담았다. 저자는 보통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냥 넘어갈 만한 작은 사건들을 '주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온몸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러한 눈물의 체험들을 기록해 놓았다.



존재의 복
임영희 | MDBooks | 303쪽

'소유'로 인한 번영과 소비를 복으로 생각하는 이들을 향해, 저자는 소유 자체가 복일 수 없고 '소유에 대한 복'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삶의 태도에 대한 복이 있어야 받을 수 있고, 그것을 누리는 이라면 '존재에 대한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저자는 유명 배우이자 목회자인 임동진의 장남으로, 배우의 꿈을 꾸다 부르심에 순종하여 목회의 길을 걷고 있다.



갈등의 세상에서 평화를 말하다
마셜 B. 로젠버그 | 한국NVC센터 | 188쪽

스테디셀러 <비폭력대화> 저자의 유작. 비폭력대화(NVC, Nonviolent Communication)의 원리를 적용해 내면에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다양한 사회 조직 안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적용에 초점을 맞춘 실천 지침서로, 실제 사례와 연습 중심이다. '기업 문화를 바꾸는 일', '테러리즘에 대한 대처' 등은 시의적절해 읽어볼 만하다.



REVIEW

LA : 조이기독교백화점 T. (213)380-8793
OC : 생명의 말씀사 T. (714)530-2211

“참된 신앙의 토대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다”

바르게 알아야 제대로 순종한다

“당신 삶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또 한 바르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은 성경에 '여호와를 알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다.

그리고 성경에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자세히 기록하셨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우리가 잘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도 알아야 하지만, 죄를 심판하시고 저주하시는 하나님, 자녀를 징계하시는 하나님도 알아야 한다.

신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라면, 신앙의 토대는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하나

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고도 날카롭게 파고들고 있다.

창조하심, 채워 주심, 언약하심, 시험하심, 훈계하심 등 14가지 키워드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쉽고도 친절하게 전하고 있다.

또한 성도들이 현실의 삶에 적용할 수 있게 했다. 바르게 알아야 제대로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성도의 삶이 풍요롭고 행복해질 수 있다. 이 책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기를 소망한다.

저자 이승희는 건강한 교회, 균형 잡힌 목회로 오직 한 영혼을 위해 목회에만 전념하는 가슴 뜨거운 목



하나님을 알아가는 행복
이승희
두란노 | 264쪽

회자다.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중시하고, 프로그램보다 목회의 본질과 원리에 충실한 저자는, 대구에

있는 반야월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백년이 넘는 기존 교회를 변화와 갱신으로 새롭게 하여 역동적이고 개혁된 교회로 부흥시켰으며,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의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제대로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성도의 삶이 풍요롭고 행복해질 수 있다.

김남준 열린교회 담임목사는 “성경의 가르침을 토대로 하고 있는 이 책은, 쉬우면서도 독자들이 깊이 공감하고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신앙의 지혜를 담고 있다.”며 적극 추천했다.

한편 저자는 총신대신학대학원

에서 목회학을 공부했으며, 총신대 신학원, 국제신학원, 대신대신학원 등에서 강의를 했다.

CTS, CBS, Goodtv, 극동방송 등에서 방송 설교자로 사역하며, 국내외 말씀집회와 세미나 강사로 왕성하게 섬기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그리스도인을 완성하는 21가지》, 《The 사랑》(이상 넥서스CROSS), 《신앙수업》, 《하나님과 함께 걷다》(이상 생명의말씀사), 《고통을 알면 행복이 보인다》(기독교문서), 《도전을 멈춘 그대에게》(교회성장연구소), 《구원의 진리》(예장출판사) 등이 있다.

이영인 기자

Church Property Solution 교회부동산 전문회사

Division of Max Capital Group, Inc.

교회 부동산에 관한 모든 것! 전문가에게 맡기십시오!

For Sale

Fullerton: \$1.25 M, 250석 본당, 친교실, 부엌, 교육부 교실들, 충분한 파킹
Yorba Linda: \$4.895 M, 225석 본당, 3.25 AC Lot, 친교실, 부엌, 크리스천 학교
Downey: \$1.25 M, 160석 본당, 친교실, 부엌, 교육부 교실들
기타 지역별로 문의하시면 정성껏 찾아 드립니다.

For Share

Anaheim Hills: 월 \$3,500.00, 주일 오후와 주중 모임 사용 가능
Garden Grove: 월 렌트 네고, 주일 오후와 주중 모임 사용 가능
Diamond Bar: 월 렌트 네고, 주일 오후와 주중 모임 사용 가능
Whittier: 월 렌트 네고, 주일 오후와 주중 모임 사용 가능
기타 지역별로 문의하시면 정성껏 찾아 드립니다.

교회 부동산 매매 Church Property Sales

교회 부동산 리스 Church Property Lease

교회 미디어 디자인 Media Design & Consulting

부동산 매매와 리스 | 인더스트리/오피스 건물/비즈니스 팍을 교회로 변경 사용 | 교회 건물 렌트 | 건축/증축/보수 상담 | 교회 부동산 용자 각 시의 CUP 받는 것을 대행 | 예배실 디자인 | 교회 미디어 상담/디자인 | 이에 필요한 모든 벤더들과 협력

Mark Kim, CEO/Broker

BRE # 01338646, NMLS # 393349
PH (909)643-3994
Email: markk@churchpropertysolution.com

Stephanie Jung, COO

BRE # 01849106
PH (562)480-6912
Email: sjung@maxcapitalgroup.org

Max Capital Group, Inc

135 S State College Blvd Suite 200
Brea, CA 92821
PH (714)987-6120 | Fax (909)635-6116
www.churchpropertysolution.com
BRE # 01987951 NMLS # 1425276

[복스 리뷰]

[복뉴스 칼럼]

“솔직, 담백, 리얼한 기독교 신앙 탐색기”

“정도전을 아시나요?”

당신이 알고 있는 기독교가 아닌 진짜 기독교를 만나라

죽음은 또 하나의 門

오늘날 기독교는 모욕당하고 있다.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에 복된 소식을 전해야 할 축복받은 사람들이지만, 교회 안에서 벌어진 안타까운 일들로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모진 비난을 받게 되었고, 그 결과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느껴야 할 감격과 자부심 대신 자괴감과 패배의식이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이자 소망인 교회가 왜 이런 지경에 놓이게 된 걸까?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걸까?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 걸까?

◆기독교의 참된 가치를 찾아서

2012년 미국의 어느 청년이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의 돌풍을 일으키면서 기독교인들의 허울뿐인 신앙생활을 꼬집는 책 『종교는 싫지만 예수님은 사랑하는 이유』가 출간되었다. 이후 제퍼슨 베스키라는 이름의 그 청년은 클라로 캔들스(Claro Candles)라는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며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종교가 아닌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삶을 더욱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본서 『기독교는 당신의 생각보다 훨씬 더 멋지다』는 그의 두 번째 책으로 성경과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진짜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독교는 당신의... 제퍼슨 베스키 생명의말씀사 | 240쪽

도 삶에서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는지, 왜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알고 있는데도 여전히 세상사에 일희일비하며 시달리는지, 왜 교회 안의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는데도 친밀한 관계는 점점 더 줄어들어가는지 등의 의문과 함께 더 성장하기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기독교의 본질을 찾아가도록 안내하는 책이다.

◆어느 청년의 삶을 바꾼 진짜 기독교 이야기

청소년 시절 마약과 폭력, 성 중독 등으로 흑독한 방향기를 거친 저자는 자신이 처절하게 고민하고 씨름한 문제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

떻게 해결받고 치유받았는지를 독자들에게 과감히 드러낸다. 그리고 뻔한 훈계와 포장 대신 직설적이고 적나라한 표현으로 많은 그리스도인이 의문스러워하거나 간과했던 내용들을 거침없이 다루며 우리 모두의 회복과 성장을 이야기한다. 그의 변화된 삶을 통해 독자들은 기독교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우리가 어떤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 보게 될 것이다. 더불어 충분히 깨닫고 누리지 못했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감격과 은혜를 다시금 생각하게 될 것이다.

◆행복한 그리스도인 되기

점점 더 많은 청년들이 기독교를 떠나고, 가나안 성도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많은 교회가 아파하는 오늘날, 이 책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왜 오늘날 기독교가 이토록 초라해졌는지 돌아보게 한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신앙적인 가치와 위신을 벗고 그리스도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야 할 것을 권면한다. 그래야 기독교가 지닌 참된 가치, 우리의 삶을 바꿔놓기에 충분한 가치를 놓치지 않을 거라 역설한다. 청년들에게는 자신들의 언어로 그동안 품었던 의문들을 풀어줄 책, 사역자 및 장년들에게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으로 새롭게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는 책이 될 것이다.

이영인 기자

정도전을 아는가? 이성계를 도운, 조선 개국의 일등공신으로 조선의 근대적 국가로의 토대를 이룩하고 혁신의 정치를 꿈꾸었던 인물이다.

정도전은 ‘인간에게 죽음이 있다는 것을 오히려 다행으로 여겼던 사람’이다. 정도전은 30대에 나주로 유배를 갔는데, 그곳에서 ‘정침’이라는 선비가 왜구에 홀로 저항하다 죽은 사연을 듣고 깊이 감동하여 이런 글을 남겼다.

“죽고 사는 것은 진실로 큰 일이다. 그러나 사람 중에 이따금 죽음을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여기는 자가 있는데, 이는 의와 명예를 위해서다. 선비들은 그 의가 죽을 마술이 있고 칼과 톱이 뒤에 버티고 있고 화살과 칼이 위에서 쏟아지고 흰 칼날이 아래에 서리고 있을지라도 거기에 부딪치기를 사양하지 아니하고 내딛기를 피하지 않는 것은, 어찌 의를 중하게 여기고 죽음을 가볍게 여김이 아니겠는가.”

“만약 정말 죽음이 없다면 사람의 도리는 벌써 없어지고 말았을 것이다. 적이 항복하기를 협박할 때에 충신이 죽음이 아니라면 어떻게 충의를 보전하겠으며, 강포한 자가 꺾박할 적에 열녀가 아니라면 어떻게 정조를 보전할 수 있겠는가. 사람이 난처한 일을 당해 바른 길을 잃지 않는 것은, 다행히도 한번의 죽음이 있기 때문이다.”

정도전은 이 글에서 왜구의 노예와 첩과 첩자가 된 양반 자제들을 향해 “그들이 한 짓이 개돼지만 못해도 스스로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이유는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당시 양반 자제란 곧 선비요, 지식인이고, 사회 지도층을 가리킨다. 정도전은 선비란 의에 살고, 선비의 삶은 당당한 죽음을 통해 완성된다고 보았다.

의가 없는 선비, 비겁한 지식인, 의무를 저버리는 지도층은 인간답게 사는 길을 포기했으니 금수(禽

獸)와 다름없다는 것이다.

그의 신념이 이러할진대, 그가 선비로서 어떻게 최후를 마쳤을지 상상이 간다. 그는 태조 이성계의 아들 간 권력 다툼의 희생물이 되어, 이방원에 의해 무참히 살해당했다.

학문을 숭상하는 응골찬 선비도 이러할진대, 우리는 누구인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증언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맞이하는 예비된 백성이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를 따지기 전에 스스로에게 반드시 확인할 것이 있다.

“지금 나는 주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내 것보다 우선하는가?”

우리에게는 준엄한 평가와 심판이 따를 것이다. 대장부의 죽음이 그러하듯, 그리스도인은 ‘나만을 근심하는가? 천하를 근심하는가?’와 같이 ‘나의 안년을 우선하는가? 하나님의 의를 우선 하는가?’의 차이가 있다.

죽음은 또 하나의 문이다. 기력의 쇠퇴에 따라 ‘물질세계와의 단절’을 겪겠으나, 찬미와 영광이 임하는 영원한 고향으로 돌아가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문을 열 것이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당신임을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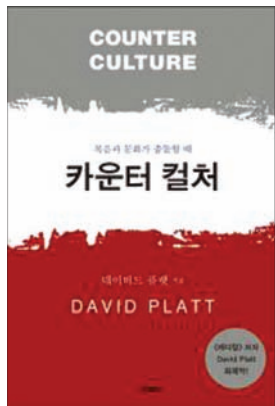
이성호 목사

“복음과 문화가 충돌할 때”

내가 선 땅의 고통에 복음으로 답하라

카운터 컬처'는 문화의 진보를 핑계 삼아 선악의 기준을 바꾸려는 시대정신에 복음으로 맞서는 것이다. 이 책은 빈곤, 동성결혼, 인종차별적인 성 노예, 난민, 박해, 낙태, 고아, 포르노그래피 등의 문제가 넘쳐나는 세상에 성경적인 대안문화를 제시하라는 래디컬한 부르심을 담고 있다.

사랑팔방, 눈길이 닿는 데마다 영적 전쟁이다. 전통적인 결혼과 동성결혼, 낙태반대와 임신중절 찬성, 개인의 자유와 정부의 보호가 충돌한다. 문화는 이미 보편적인 진리로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는 지점을 넘어서고 있다. 이때,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침묵할 것인가, 외면할 것인가, 순응할 것인가, 아니면 성경의 목소리



카운터 컬처 데이비드 플랫폼 두란노 | 344쪽

를 낼 것인가? 동성 결혼, 인종 차별, 성 매매, 빈곤, 낙태 등의 이슈에 대해 저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하고 답을 찾아갔는지 알 수 있다. 저자는 크리스천들이 일어나 오늘날 가장 치열하게 논란이 오가는 이슈들보

다 한층 더 급진적인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가 왔다고 외치고 있다. 물러서지 않는 그의 용기를 따라가 보자.

세상에 순응하는 것에 대응해, 사랑으로 그러나 진실하게 맞설 뜻 있는 이들이 필요하다. 혼탁한 시대정신 속에서 성경을 기준으로 삼고 그에 따른 대가를 기꺼이 치르는 ‘카운터 컬처’의 용기가 필요하다.

이제 크리스천들이 복음을 믿고 그 믿음에 기대서 문화에 개입하게 되길 기대한다. 책을 읽는 동안 하나님이 눈을 열어 주셔서 우리의 문화와 주변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필요를 확인하고, 눈물로 그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확신과 공흥과 용기를 품고 일어나 하나님의 진리를 겸손하게 전파하게 되길 바란다. 또 자신을 비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여정에 나서보자. 진리를 말해주는 것이 최고의 사랑임을 잊지 말자.

이영인 기자



이성호 목사 크리스천복뉴스 부운영자

북한간부의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와 순교한 스토리

- 우리들의 회개와 동족들의 마음을 얻어 통일의 꿈을 줄 두 권의 책 -

- 구입: 미주두란노와 기드온동족선교회 (\$20/권당)
- 문의: (425) 775-7477, www.gideonbrothers.org, gbmwusa@gideonbrothers.org (온라인주문가능)
- 주소: GBMW (체코오더명과 우편수취명 동일)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건강에 좋은 세탁 세제
주방 살균소독 대만족

우리가 찾던 바로 그 세제

Pure Soap emina99

99% 살균력

\$65 1Box (분말타입)

우리 가정에서 사용하는 생활세제는 20가지가 넘습니다. 대부분이 화학세제로서 아토피, 알레르기, 피부질환의 원인이 되고, 환경을 오염시킵니다. 이 화학세제 대신 친환경, 무공해, 다용도 “에미나99” 세제를 꼭 사용해 보세요!

사용 효과

- 세탁 시 유연제 필요없고, 정전기 방지되고, 보습보습한 건강에 좋은 세탁물이 됨
- 고무장갑 없이 설거지 하면 피가 더 잘 통하고, 기름기 잘 지워짐
- 청소(화장실 변기, 욕조, 마루, 가구, 가전제품, 식당, 후드, 세차) 시에 화학물질이 없어지고, 이산화탄소를 없애 공기를 정화시킴
- 애완동물 목욕, 어항 수질 유지와 뿌리면 집안의 모든 냄새를 없앴
- 농작물에 적은량을 뿌려주면 진딧물과 병충해가 없고 수확이 3배 이상이 되며 무공해 농사를 지을 수 있음(꽃에 뿌리면 빨리 시들지 않음)
- 양치질, 활성산소 제거, 정전기 방지, 신선도 유지, 에너지 절감, 해충기피, 습도조절, 결로방지, 곰팡이 제거

자매품: 물통, 밥통, 튀김통, 생생팩, 신비의물통, 세수버누, 샴푸, 로션, 크림은모두 향산화 용액을 넣어 만든 제품으로, 산화를 막아주는 세계 유일의 특유한 제품입니다.

1 친환경 세제 (우리집 건강 지킴이)
아토피, 피부염 상처, 가려움증 효과

2 지구 정화
이산화 탄소, 다이옥신 제거 방사선 감마선 20% 감소

3 경제적 절감 (일반세제의 1/3 사용)
4인 가정 화학세제 년 약 \$200.00 지출함

4 물 절약
평균 1회 OK 사용한 물은 식물 거름 재활용 OK 하수구 정화

Two to Become One: G2G and KODIA to Merge to 'More Effectively Serve the Korean Immigrant Church'

BY JUNHYEONG KIM
TRANSLATED BY RACHAEL LEE

Two organizations that have been serving the next generation of the Korean immigrant church — G2G (Generation to Generation Christian Education Center) and KODIA (Korean Diaspora Christian Education Institute) — announced that they will be merging together as one organization.

G2G, which is based in the U.S., and KODIA, based in Canada, have already collaborated for the past three years to create the first ever resource for youth students of Korean immigrant churches in North America. In 2014, they released the first book called, 'Living Between,' meant to be a resource for 10th graders, and in 2015, they released 'Living Together,' a resource for 11th graders. This year, they will be releasing a resource for 12th grade students.

The two organizations have also worked together to provide mentorship to ministers, inform and educate Korean immigrant parents, and other efforts.

The ceremony to celebrate the merge will take place on Friday, May 13 at 10 AM at the Ramada Hotel on Olympic Boulevard and Bonnie Brae Street.

"We decided to merge into one organization to even more effectively and powerfully pursue our goal to provide spiritual resources to the next generation of the immigrant community," said Hak Joon Lee of G2G and Sung Hwan No of KODIA.

G2G and KODIA are also looking for supporting churches who would partner with them. Rev. Hee Min Park, the former lead pastor of Young Nak Presbyterian Church, is leading the effort in recruiting partner churches, and several churches in both the U.S. and Canada have already expressed their support, including New Life Vision Church,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New Jersey, Berendo Street Baptist Church, Oriental Mission Church, Good Stewards Church, Korean Church of Boston, Korean Community Presbyterian Church of Atlanta, and Light Presbyterian Church of Toronto, among others.



Church-goers in the Seattle region gathered at United Presbyterian Church of Seattle to pray for reunification in Korea.

Korean Christians in Seattle Pray for Reunification in Korea

BY BRIAN KIM
TRANSLATED BY RACHAEL LEE

"Reunification is approaching. We need a 'strategy for reunification,' and a 'strategy after reunification.' Our sincere prayers for peaceful reunification will open the door for reunific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e reunification of one people is not in the hands of political leaders, but of God. God hears the cries of our brothers in North Korea and will save them."

Congregants of various churches in the Seattle region raised their hands in prayer for peaceful reunific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A prayer meeting that took place on May 1 at United Presbyterian Church of Seattle brought together church-goers of Seattle in one place to pray fervently for reunification in Korea and the

re-establishment of churches in North Korea.

Speaking from Esther 4:14, Rev. Peter I. Sohn, the international director of Until the Day Mission, said, "The churches in Korea -- which should be the main agent of prayer for reunification between the North and South -- are asleep and immersed in vanity and conceit."

"Churches in Korea must wake up and take to heart the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that are occurring against the North Korean people, and repent and pray," Sohn emphasized.

"The completion of reunific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is not just political or physical reunification, but the re-establishment of churches in North Korea and revival happening once again," Sohn continued, and encouraged Christians to pray for a reunification "without war, without the

shedding of precious blood," and that through reunification, "Korea would rise as a nation of a priesthood in which youth and young adults from both North and South Korea would participate in mission together."

"Lord, have mercy on this people! Help the Korean church to wake up and repent! Save the underground churches of North Korea! Re-establish churches in the land of North Korea! Let there be a war-less, peaceful reunification!" said the pastors who led the gathering into prayer.

This prayer meeting in Seattle comes as part of a series of prayer gatherings that will take place in various states, the first which took place in Denver in April. Another will take place on May 15 in Oregon, and in July, two prayer meetings will take place in Washington, D.C. and Baltimore.



Sung Hwan No (left) and Hak Joon Lee (right) pictured in 2014, explaining the 'Living Between' study material.

Korean American Non-Profits Seek to Empower Mothers KFAM, KYCC to Hold Seminars Throughout Month of May

BY RACHAEL LEE

A series of events and seminars for mothers will be taking place in the month of May, which is often known in the Korean community as the 'month for family,' as Korea's Children's Day lands on May 5, and Parents' Day lands on May 8.

The events, some of which are co-hosted by KYCC and all of which are hosted by KFAM, will be taking place on May 4, 11, and 25, all free of charge and primarily for mothers with children who are under the age of 18.

In March, KFAM, KYCC, and YNOT Community Services co-hosted a 'healing seminar' for mothers, during which mothers were able to participate in art workshops to help them to examine their emotional states, and a seminar regarding disciplining their children. On May 4 and 11, KFAM and KYCC will be co-hosting follow-up 'healing seminars' on different topics, but in the same format as the March seminar: an art workshop in the beginning, and a seminar on parenting towards the end.

The seminar taking place on the

25th will focus on learning about the different dangers that children may be exposed to in today's society, and how parents can best protect their children.

"Children can grow with healthy hearts and bodies when they grow up with healthy families," said Connie Chung Joe, the executive director of KFAM. "We hope that many mothers would be able to participate in these events that we've prepared for this month."

All of the seminars will take place at the KFAM office in Koreatown. For more information, email dkim@kfamla.org.



(Photo courtesy: KFAM) Mothers participating in an art workshop during the March 'healing seminar'.

Hyo Sarang's 4th Annual Writing and Arts Contest: 'What Have I Received from My Parents?'

Hyo Sarang Mission will be holding a writing and arts contest once again this year. This year's contest, which will already be the fourth, focuses on the theme, "What have I received from my parents?"

For those who participate in the writing competition, entries may be submitted in Korean or in English, and can be up to three pages long with 12-13 size font. For those who participate in the arts competition, the artwork can be created with oil, pencil, watercolors, or other medium, and a description of the artwork must be included at the back of the work in 10 lines or less. The submitted entries will be

judged separately based on grade level (elementary, middle, or high school), and entries submitted by students with disabilities will also be judged separately.

Entries will be received until May 20, and can be submitted directly or by mail to Hyo Sarang Mission (7342 Orangethorpe Ave #B113, Buena Park, CA 90621). Writing submissions can also be submitted via email at hyosarangus@gmail.com.

All participants will receive honorary gifts and certificates, and those who come in as first, second, and third will receive laptops, tablets, and/or other prizes. Judges

will determine whether the submissions have sufficiently and excellently expressed the spiritual and physical legacy that the students have received from their parents, and whether that has been tied in to the way they view their identity and values system. The awards ceremony will take place at Fullerton Presbyterian Church on June 11.

Meanwhile, 'hyo' is a Korean term that refers to a child's duty to take care of his or her parents, while 'sarang' is the Korean word for love. As such, Hyo Sarang Mission has held contests consistently based on the theme of parent-child relationships.



The judges and organizers of the Hyo Sarang Mission writing and arts contest explained the details of the event.

Local Churches and Ministries

Christianity Daily
A ministry through journalism

For questions about advertising and donations
T.(213)739-0403 F.(213)402-5136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PASTOR JUSTIN KI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4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Sunday Services: 9:30 AM & 11:30 AM
Sunday School: 11:30 AM
College Group Meetings: Fridays at 6 PM

PASTOR SUNG CHANG

Charis Mission Church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www.charis.church

Sunday Services: 11 AM & 12:30 PM

PASTOR HAROLD KI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com

Korean Chinese Pastor Found Dead

North Korean Authorities Suspected for Murder of Choong Ryul Han, Who Helped Defectors

A Korean pastor with a Chinese citizenship was found dead in Jilin province, China around 8 PM local time on Saturday.

Choong Ryul Han was known to have helped defectors from North Korea and served at Changbai Church in Jilin.

According to reports, a North Ko-

rean security official is suspected to have killed the pastor. Han was found with stab marks on his body and is suspected to have been killed elsewhere and then moved to a hillside in Changbai.

Chinese authorities are currently investigating the cause for Han's death. As Han is a Chinese citizen, a strain

on China-North Korea relations may result if the investigation finds that a North Korean official was involved in Han's death.

Han founded Changbai Church in 1993 and has helped defectors since then. He is also known to have done mission work related to underground churches in North Korea.

Religious Freedom Deteriorating Around the World, Says Report

The cause of religious freedom has suffered over the last several years, according to the 2016 annual report released on Monday by the United State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USCIRF).

It referred to the mass displacements triggered by ISIS persecution of Christians and minorities in the Middle East, acts of bigotry against Jews and Muslims in Europe, imprisonment of Christian lawyers and pastors in China who protested against the crackdown on churches and crosses, among several other "serious and sustained assault(s)," on freedom of religion all over the world.

"Regrettably, the situation is that things have not improved, and in some places things have gotten worse," said Robert P. George, who chairs the commission.

The report cited over 30 countries, where the religious freedom norms were being flouted, and listed "countries of particular concern" where the "governments either engaged in or tolerated 'particularly severe' violations of religious freedom."

The countries of particular concern (CPC) included Myanmar, China, Eritrea, Iran, North Korea, Saudi Arabia, Sudan, Turkmenistan, and Uzbekistan.

USCIRF did not rank the nations on the level of abuses committed against religious groups, but George told The Washington Times that North Korea was "one of the worst offending nations, if not the worst offending nation in the world."

According to the report, the North Korean regime gives no precedence to religious freedom, and continues to severely persecute those who practice religion.

"They arrest, torture and even execute those who are secretly engaged in religious activities," USCIRF said.

Since 2014, the Chinese government also conspicuously took steps to suppress religious freedom in its efforts to maintain communal order based on socialism. Most of the persecution was directed towards Christian groups, as they sought to put pastors and Christian lawyers behind bars for protesting against the government campaign of raz-

ing churches and taking down crosses.

Meanwhile, USCIRF said that religious freedom in India was on a "negative trajectory" since last year.

"In 2015, religious tolerance deteriorated and religious freedom violations increased in India," the report noted, alluding to rising instances of violence reported against the minorities.

Last year, the USCIRF panel had wanted to come to India to assess the religious freedom situation in the country, but was denied visas by the Indian government on the grounds that a foreign third party had no standing to investigate religious freedom.

Pakistan was also one of the countries on CPC, and has the highest number of people on death row or life sentence for blasphemy.

The commission asked the world leaders to end the abuses rampant in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There is "a continued gap between rhetoric of the regime and the situation on the ground... While we welcome the rhetoric, rhetoric doesn't really matter unless it's accompanied by action," George said.

Study Finds 50 Percent of Teens Are Addicted to Their Smartphones

Almost 60 percent of parents said that they believe their children are addicted to smart phones, and about 50 percent of the kids agreed to that, according to a new survey conducted by Common Sense Media released on Tuesday. The non-profit group interviewed 1,240 parents and their children aged between 12 and 18 years in the U.S.

Most of the teens check their phones frequently and feel compelled to reply to the messages as soon as they find them on their devices.

About 78 percent of children check their phones almost every hour, and 72 percent admitted to having an intense need to respond to text and social media messages. Parents (48 percent) were less likely than their kids to reply to the messages as often, but 56 percent of adults did check their cell phones while driving.

The study's findings pointed out that the use of technology can stra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and have adverse effects on kids' homework and family time.

It is also one of the causes of conflicts at home, as 36 percent of parents and 32 percent of children said they argued with each other almost daily over excessive phone use. More than 75 percent of parents thought that their children don't pay attention to them at home during family times due to distraction posed by devices.

Holland Haiis, a digital detox expert, said that addiction to technology can lead to potential social problems that parents need to be aware of.

"If your teens would prefer gaming indoors, alone, as opposed to going out to the movies, meeting with friends for burgers or any of the other ways that

teens build camaraderie, you may have a problem," Haiis told CNN.

Dr. Beth Peters, a clinical psychologist specializing in teens and families said that taking away technology from children can have an adverse impact on their lives.

"To adolescents, the social network and contact with friends is the paramount developmental task and focus," Peters said. "When you remove a teen's lifeline to their friends, there will be a major emotional backlash, a breakdown of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Experts say that depriving kids of devices is not the answer, as balanced stimulation from technology is crucial for a teen's social and cognitive development, but there is a need to set concrete rules in the family to limit the media access time, and reserve special times together for family activities.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to Young Adults): 7:30 PM

PASTOR JAMES KWA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gschurch.org



Sunday Services: 9 AM & 11 AM
Bible Studies: Wednesdays at 7 PM
Prayer Meetings: Tuesdays at 11 AM, Saturdays at 9 AM

PASTOR SAM KOH

Hillside Church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909-9062 / www.hillsidel.org



Sunday Services: 9:45 AM

PASTOR PHIL KIM

The Home Church

19271 Colima Rd. Suite A/B,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384-1393 / thehomechurchrowland.com



Sunday Services: 11:30 AM

PASTOR HENRY LEE

Crossroads Church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www.crclafgc.com



Sunday Services: 9 AM & 11 AM
College Group Meetings:
Sundays at 12:30 PM, Fridays at 8 PM

PASTOR STEVE CHANG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1215 W. Lambert Road, Brea, CA 92821
T. (562) 694-2100 / www.livinghopecc.org



Sunday Services: 10: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0:30 AM, 12:15 PM
College Services: Sundays at 12:15 PM

PASTOR KIWON SUH

New Life Vision Church

4077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323) 373-0110 / www.nlvc.org



Broadway Campus Sunday Services:
9:45 AM, 11:15 AM, 12:45 PM
Jefferson Campus Sunday Services:
9:30 AM, 11:30 AM

PASTOR MICHAEL LEE

Young Nak Celebration Church

Broadway: 1721 North Broadway, LA, CA 90031
Jefferson: 150 W. Jefferson Blvd., LA, CA 90007
T. (323) 227-1414 / www.ynccla.org




GOLDEN GATE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골든게이트 침례대학 대학원 CLD 분교



- See the Bible as One Moving Picture! Eat the Small Scroll and Witness the Gospel of Jesus Christ! Do His Ministry of the Holy Spirit as Moses, Elijah, and Apostles in His Time!
- Self-sustaining, self-mobilization, self-governing, self-theologizing, self-missilogizing, self-Christcenterizing, and self-Christactualizing in Christ

COURSE STUDY FOR SUMMER 2016	PROFESSOR	Units per	Reference
CLL 1212 Introduction to Christian Theology **Wednesday 5:30pm-10:00pm **Saturday 8:30am-6:45pm	Dr. John Shin Wednesday : 5/25, 6/1, 6/8, 6/15, 6/12 Saturday : 5/28, 6/4, 6/11	3 units Intensive Course	Long Beach Campus
**Monday 5:30pm-10:00pm **Wednesday 5:30pm-10:00pm	Monday : May 30th, June 6th, 13th, 27th, 29th Wednesday Joining at the Long Beach Class	10 Week Course	El Monte Campus
CLP 1512 Counseling for Church Leaders of the Holy Spirit **Monday 5:30pm-10:00pm **Saturday 8:00am-12:30pm	Dr. John Shin Saturday : 6/18, 6/25, 7/2, 7/9, 7/16, 7/23 Monday : 7/6, 7/13, 7/20	3 units Intensive Course	El Monte Campus

- Vice President, Dr. Michael Martin
- National CLD Director, Rev. Don Beall
- CLD LA, LBH Zion Theological School (E9)
- Director, Dr. John Shin
- Telephone T(818)421-4520, jshinglobalms@hotmail.com
- Registrar, Nant Khambounheuang 562/242-6015
- LA Campus : 3041 N. Peck Rd., El Monte, CA 91731
- Long Beach Campus : 3435 San Anselme Ave., Long Beach, CA 90808

Shaping effective Christian leaders for the churches of tomorrow

The Last Date of Registration: May 7, 2016!!!

HAVE GREAT VISION OF GOD AND BE GLOBAL!

원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만민을 품어라!

Our Christian Leaders School Invites the Dedicated Christian Leaders for Today and Tomorrow!

- Triple-Language Tracks** : English, Spanish, Korean
- Diploma Degree** : Ministry, Theology, Church Planting, Women's Leadership
- Opportunity** : Upon completion of program, students graduate and receive Diploma degree GGBTS and are GGBTS alumni : More than eleven mission ministry opportunities are opened to individual his or her qualification.
- COUNSELING FOR CHURCH LEADERS IN MINISTRY OF THE HOLY SPIRIT**
The course covers forty three essential subjects or areas in 21st century including an additional emphasis on doing His "Spirit-filled Counseling Ministry."
- INTRODUCTION TO CHRISTIAN THEOLOGY**
An introduction of Christian Theology surveying the Person of Christ and His Work, Person of the Holy Spirit and his work Salvation the Church and Her Work, and the Last Things and Preparation for the Second Coming including an additional focus on the ethical implications of Christian thought and practice "Ministry of the Holy Spirit."


PuenteHillsHyundai
SUPER STORE

72개월까지
0%이자가가능

새 봄 맞이 SALE

NEW
2016 HYUNDAI
ELANTRA SE

Lease It For **\$58** +Tax

All In Stock With
MSRP \$19,375

36 Months Closed End Lease, \$3,999 Due At Signing, \$2,000 Lease Cash, \$500 Competitive Owner Coupon, \$500 Military Rebate, \$400 College Grad Rebate,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THE EXCITING APPEAL OF ELANTRA SPORT"

NEW
2015 HYUNDAI
SONATA SE

"DESIGN RENEWED BY INNOVATION"

Lease It For **\$8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2,875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50 Due At Signing, \$2,000 Lease Cash, \$500 Valued Owner Coupon, \$500 Military Rebate, \$400 College Grad Rebate,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NEW
2016 HYUNDAI
EQUUS SIGNATURE

Lease It For **\$399** +Tax

3 In Stock With
MSRP \$62,450

All in Stock
36 Months Closed End Lease, \$5,999 Due At Lease Signing, Lease Cash \$8,500, Competitive Owner Coupon \$1,500, Military Rebate \$500, College Grad Rebate \$400,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A PERFORMANCE VEHICLE WRAPPED IN LUXURY"

NEW
2016 HYUNDAI
GENESIS Signature Package

Lease It For **\$239** +Tax

All In Stock With
MSRP \$43,785

36 Months Closed End Lease, \$3,999 Due At Lease Signing, \$2,500 Lease Cash, \$1,000 Competitive Owner Coupon, Military Rebate \$500, College Grad Rebate \$400,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It's an honor to be nominated 2015 North American Car Of The Year Finalist"



찰리 정

626.513.4981



스티브 장

626.723.3336



저스틴 길

626.723.3584

HYUNDAI

1-888-644-7114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Terms and conditions available

HYUNDAI
Assurance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